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희 명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Le Grand Meaulnes*에 나타난  
공간과 인물의 양면성 (l'ambivalence)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김 성 은

*Le Grand Meaulnes*에 나타난  
공간과 인물의 양면성(l'ambivalence)

김희명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김성은

# 인 준 서

김성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Le Grand Meaulnes*(1913)는 20세기 ‘누보로망’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Alain-Fournier (본명 : Henri-Alban Fournier, 1886-1914)의 처녀작이자 유일한 작품으로 자전적 성향이 강한 작품이며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주인공 Augustin Meaulnes의 모험과 방황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중심으로 여러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과 작중 여주인공인 Yvonne와 Valentine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이 지니고 있는 내면과 외면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공간과 등장인물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 중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면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상호간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본론의 제 1 부에서는 몽상의 공간인 신비의 영지와 현실의 공간인 Paris 그리고 몽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공간인 Saint-Agathe에 잠재되어 있는 양면성을 살펴본다.

제 2 부에서는 작품의 여주인공이자 몽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대변하는 Yvonne와 Valentine를 중심으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양면성을 살펴본다. 즉, Meaulnes에 의해 나타나는 Yvonne의 현실성과 Frantz에 의해 나타나는 Valentine의 몽상적 성향(rêverie)을 찾아 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Meaulnes의 양면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3 부에서는 공간과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이론을 근거로 공간과 등장인물 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을 살펴본다. 다시 말해, 몽상의 공간 안에서 현실적 인물에게 내재되어 있던 몽상의 성향이 나타나는 것과 현실적 인물이 몽상의 공간을 현실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François Seurel, Augustin Meaulnes, Frantz de Galais와 작가와의 삼자 일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여주인공 Yvonne와 Valentine 그리고 공간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중심으로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는 몽상과 현실에 관해 검토한다. 또한, 이를 통해 Alain-Fournier는 작품 안에서 몽상과 현실의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음을 규명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1. 공간의 양면성 .....	7
1-1. 몽상과 현실의 공간 : Saint-Agathe .....	7
1-2. 이상과 우울의 공간 : Paris .....	17
1-3. 시작과 끝의 공간 : Domaine sans nom - Sablonnières .....	28
2. 인물의 양면성 .....	39
2-1. 이상에서 현실로 : Yvonne .....	39
2-2. 현실에서 몽상으로 : Valentine .....	45
2-3. 몽상과 현실의 혼재 : Meaulnes .....	49
3. 공간과 인물의 상관관계 .....	59
3-1. 인물이 공간에 미친 영향 .....	59
3-2. 공간이 인물에게 미친 영향 .....	66
3-3. 공간과 인물간의 상호작용 .....	72
III. 결론 .....	81

## 참 고 문 헌

## ABSTRACT

## I. 서론

*Le Grand Meaulnes*(1913)는 28세의 나이로 전쟁터에서 요절한 Alain-Fournier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에 발표된 작품으로 19세기와 20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의 문학 사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19세기의 사실주의 문학과 20세기의 꿈과 현실을 다루고 있는 초현실주의 성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작가는 실제 삶의 과열적이고 단편적인 특징을 작품의 작법(作法)을 사용하면서 누보로망의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평가 받는다.

Mauriac이 어느 작가나 처녀작은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고 한 것처럼, Alain-Fournier의 처녀작인 *Le Grand Meaulnes*에서도 그의 인생이 드러나고 있으며, 작가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sup>1)</sup>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요절한 탓에 그의 처녀작은 동시에 마지막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안에는 Alain-Fournier라는 한 인물의 28년간 살면서 겪은 그의 경험들이 녹아있다.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들을 작품에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자기 탐구를 주요 등장인물들에 빗대어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Fournier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 작품 속으로 옮겨진 외적 요소와 작가 자신의 내면이 반영된 내적 요소들로 구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들은 상상이 가미되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과 부딪쳐 작품에 양면성이라는 큰 주제를 형성시킨다.

그렇다면 우선, 작가의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가 작품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외적 요소부터 살펴보자면, Fournier가

<sup>1)</sup> "Ce roman, il n'a d'abord été que moi, moi et moi!"

A.Fournier et J. Rivière, *Correspondance I* 13/08/1905, N.R.F., Paris, Gallimard, 1948, p.31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의 지명들이 작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외적 요소이다. 이것은 Fournier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작품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소설에서 볼 수 있는 현실효과를 시도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지명을 사용한 것은 19세기 사실주의 시대의 문학작품들에서 흔히 쓰이던 방법이었던 것인 반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공 속에서 완벽하고 경이로우며 이상화 된 과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은<sup>2)</sup> 초현실주의 작품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소는 작품에 등장하는 Meaulnes의 두 여인, Yvonne와 Valentine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여인들은 모두 Fournier가 생전에 직접 만났던 여인들이다. 실제 Fournier가 만났던 Yvonne de Quiévre-court<sup>3)</sup>는 작품 내에서 신비의 영지의 순수하고, 신비로움을 대표하는 Yvonne de Galais로, Fournier의 인생에 일부분을 차지했던 모자 판매업에 종사하는 Jeanne Bruneau<sup>4)</sup>는 Valentine<sup>5)</sup>로 구현되고 있다.

---

2) “Deux temps s'opposent dans *Le Grand Meaulnes* : un temps parfait, magnifié, celui d'un passé idéalisé ; et un autre temps, le temps réel qui se déroule, et dans lequel on tente de retrouver le premier.”

Sylvie Sauvage, *Imaginaire et lecture chez Alain-Fournier*, P.I.E.-Peter Lang, 2003, p.40

3) “Le 1er juin 1905, jeudi de l'Ascension, sortant d'une exposition qui se tient au Grand-Palais, Henri Fournier rencontre une jeune fille qui l'émerveille……” “Je suis mademoiselle Yvonne de Quiévre-court”, mais lui demande de ne plus chercher à la revoir. Cette rencontre, que l'on peut lire, à peine transposée, dans *Le Grand Meaulnes*, devient l'événement majeur de la vie d'Alain-Fournier.”

Adeline Lesot, *Le Grand Meaulnes, Alain-Fournier*, Hatier, 1998, p.6

4) “Jeanne was a milliner who lived with her sister in a flat in rue Chanoinesse near Notre Dame, and, very enterprisingly, in an age when French social and legal attitudes still discriminated strongly against women, the pair of them were striving alone together to establish their own independent little business. How she came to meet Fournier is not known, but it is evident that he was readily attracted by her looks and by the fact that she came from Bourges. It did not, apparently, take long for Jeanne to become his mistress or for Fournier to pick a violent quarrel with her. As a sign of her confidence in their relationship, she would seem, rather too soon, to have provided him with details of her previous love-affairs and by so doing, with what was always to remain his major cause of grievance with her : her lack of 'purity'.”

Robert Gibson, *The End of Youth -The Life and Work of Alain-Fournier*, Impress books, 2010, p.187

5) “Quant à Valentine, d'abord lapidée à l'image de la pécheresse biblique dans des pages écartées du roman, puis abandonnée à son sort par Meaulnes qui ne peut lui pardonner – tel Fournier face

셋째 요소로 우리는 Fournier가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sup>6)</sup>이 작품 곳곳에서 은유법을 이용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emeure d'où partirent et où revinrent se briser, comme des vagues sur un rocher desert, nos aventures.<sup>7)</sup>

황량한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처럼 우리의 모험은 이 집에서 밀려갔다가 되밀려와 부서지곤 했다.

Je m'étais approché jusqu'au premier rang et je regardais avec les autres cet attelage perdu qui nous revenait, telle une épave qu'eût ramenée la haute mer – la première épave et la dernière, peut-être, de l'aventure de Meaulnes. (p.39)

나는 맨 앞으로 나가 우리에게 돌아온 그 마차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것은 높은 파도가 돌려보낸 하나의 난파선, 아마도 몬느의 모험의 처음이자 마지막 난파선 같았다.

작가는 어린 시절에 바다를 소재로 한 모험 소설들인 『해저 2만리 *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 『신비의 섬 *L'Île mystérieuse*』, 『첸슬러 *Le Chancellor*』,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데이비드 코퍼필드 *David Copperfield*』 등과 같은 작품들을 통독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Alain-Fournier는 바다를 동경하며 해군장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Brest에서의 해군 장교 생활은 그가 동경한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었다.

---

à Jeanne Bruneau, le modèle du personnage – de posséder «presque toutes les meilleures qualités. Sauf la pureté» ….”

Sylvie Sauvage, op.cit., p.253

<sup>6)</sup> “Il s'en éprit effectivement au point qu'à quinze ans, souhaitant devenir officier de marine, … Il semble que l'amour de la mer ait pris dans son imagination exactement la forme et la force d'une «invitation au voyage» .”

Sylvie Sauvage., *Ibid.*, p.63

<sup>7)</sup> Alain-Fournier, *Le Grand Meaulnes*, Libraire Fayard, 1971, p.12 (이후 본 연구서의 인용문은 쪽수로만 표기한다. 번역서는 김치수, 『대장 몬느』, 문학과 지성사, 2007 참조.)

따라서, 그는 1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바다에 대한 동경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lain-Fournier는 작품 내에서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é』의 제목이나 장면을 직접적으로 인용한다.<sup>8)</sup> 이와 같은 인용은 *Le Grand Meaulnes*에 작가의 인생 경험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청소년기에 읽었던 책의 내용으로 그 밑바탕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검증한다.<sup>9)</sup> 따라서, 그의 작품 곳곳에서 모험과 관련된 상황이나 숨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모험=바다’라는 공식의 은유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이 이 작품의 자전적인 외적 요소들이라면, 과연 작품 내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내적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 이 내적 요소는 바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세 명의 남자 등장 인물들, 즉 François, Meaulnes 그리고 Frantz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작품 속에서 Fournier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로서, 각각 Freud가 이야기하는 작가의 세 가지 정신 기재인 자아(Moi), 본능(Ça) 그리고 초자아(Surmoi)<sup>10)</sup>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8) "On appelle intertextualité la perception par le lecteur de rapports entre une oeuvre et d'autres qui l'ont precede ou suivie. Toute lecture est donc, à un niveau ou un autre, intertextuelle.

Ces rapports peuvent être explicités et marqués par :

- La citation : par exemple, dans le roman d'Alain-Fournier, la citation de l'oeuvre de D.Defoe qui sert de titre au chapitre III : je fréquentais la boutique d'un vannier."

Marie-Madeleine Touzin, *Parcours de lecture Le Grand Meaulnes d'Alain-Fournier*, Bertrand-Lacoste, 1988, p.22

9) "À la lecture d'Ainsi parlait Zarathoustra, Jung reconnut en effet, à sa grande surprise, un extrait d'un livre de bord publié en 1835, bien que Nietzsche n'y fit aucune allusion. Encore en vie, la soeur de l'écrivain confirma à Jung qu'elle avait effectivement lu ce livre avec son frère quand elle avait onze ans. D'après le contexte, Jung estima qu'il était impensable que Nietzsche se soit rendu compte qu'il récrivait une page lue dans son adolescence; et de conclure : cinquante ans après, l'histoire avait inopinément resurgi dans son esprit conscient."

Sylvie Sauvage, op.cit., p.49

10) "L'appareil psychique se divise en un «ça» qui est le porteur des motions pulsionnelles, un «moi» qui constitue la partie la plus superficielle du «ça», modifiée par l'influence du monde extérieur, et un «surmoi» qui, sorti du «ça», domine le moi et représente les inhibitions de la pulsion, caractéristiques de l'homme."

J.-D.Nasio, *Le plaisir de lire Freud*, Petite Bibliothèque Payot/356, 1999, p.99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상황과 주변 여건에 따라 이러한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환상의 공간, 동화 같은 성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Frantz는 현실 보다는 몽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본능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라는 현실적이면서도 몽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 속에서 지내는 François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초자아의 성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으로도 등장하는 Meaulnes는 꿈과 환상의 공간과 Paris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 또 현실과 꿈이 공존하는 학교라는 공간 모두를 넘나드는 인물로서, 의식(Conscient), 무의식(Inconscient), 전의식(Préconscient)이 모두 함께 뒤섞여 있는 자아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

이처럼, *Le Grand Meaulnes*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과 공간들은 작가가 경험한 외적 요소와 그의 내면인 내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등장인물과 장소들이 항상 각자 주어진 한 가지 성향으로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각기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있었는가에 따라, 그들이 지니는 의미와 성향이 달라지며, 등장인물들은 서로 어떤 성향의 인물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들의 기본 성향이 바뀐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항상 서로 반대되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을 보인다. 마치, Yvonne가 어떤 공간에 있었느냐에 따라 그 모습과 성향이 달라지고, Paris와 학교라는 공간에 어떤 성향을 지닌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분위기와 모습이 본래의 모습과는

11) "가능성과 모험, 계획에 대한 환상적인 자아이며, 꿈의 세계에서 현실로 주입된 Frantz의 무의식적 특징이 '이드(le Ça)'의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고, 일상적이고 가정적인 François가 Meaulnes의 모험에 관한 과거의 추억들의 증인인 동시에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로서 '초자아(le Surmoi)'의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본다. 또한, 잃어버린 과거, 어린 시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향하는 Meaulnes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이 혼합된 심급인 '자아(le Moi)'의 성향을 접하게 될 것이다." 손화진, 「*Le Grand Meaulnes*의 작중 인물 연구 - 그 삼원적 구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p.3

다르게 그려지는 것을 이에 대한 일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처럼 작품에 나타나는 양면성은 작품에 작가의 경험이 녹아 있다는 전제 하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작가의 과거 기억과 그가 지니고 있는 욕구, 또 그가 그려내고자 하는 인물 간에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공간과 작중 인물들에게 존재하는 양면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양면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Fournier가 이 작품을 통해 세기말과 전운이 감도는 20세기의 변혁기에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 II. 본 론

### 1. 공간의 양면성

공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에 따라 한 인간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맹자의 어머니께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 거처를 옮겨 다녔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에서 우리는 공간이 인간의 성품과 성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 안에서도 우리는 작중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형성시켜 나가는 시기에 크게 청소년기에 세 공간을 중심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단지, 학교라는 틀 안에서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공간을 주요 세 등장인물이 순회하고 있는 것이다. Gaston Bachelard가 “공간은 행동을 부르고, 또 행동에 앞서 상상력이 활동하는 법이다.”<sup>12)</sup>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장인물들도 각각의 공간의 성향에 따라 상상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맞는 행동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학교가 위치해 있는 Saint-Agathe, Paris 그리고 Sablonière의 공간과 작중인물들과의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에 갇혀 상상만 하는 수동적인 인물들이 아닌, 여러 공간들을 모험하거나 찾아다니며 직접 행동하는 능동적인 청소년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 1-1. 몽상과 현실의 공간 : Saint-Agathe

##### (1) 학교

학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따르며 이를 학습하는 현실공간이다. M. Seurel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sup>12)</sup> "L'espace appelle l'action, et avant l'action l'imagination travaille."

Gaston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U.F. p.30

학생들에게 “Ne sabotez donc pas comme ça, le gamins!”(p.24)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가 수업 시간 동안 보이는 행동들(s’arrêta, frappa un grand coup de règle sur la table, pour faire cesser le bourdonnement confus des fins de la classe…)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 공간은 이내 학교의 위치에 의해 몽상의 공간이 상감된다. 학교 에는 두 문이 있는데 한 쪽은 La Belle-Etoile 농장을 지나 들판으로 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마을의 역으로 이어진다.<sup>13)</sup> 즉, 들판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옮겨오는 몽상의 세계와 기차를 타면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왜 학교라는 공간 안에 이러한 두 성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는 작품의 1부 3장의 제목인 “Je fréquentais la boutique d’un vannie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Qui est-ce qui ira demain en voiture à La Gare avec François, pour chercher M.et Mme Charpentier? ».... A la question de M. Seurel, une dizaine de voix répondirent, criant ensemble : «Le grand Meaulnes ! le grand Meaulnes ! » Mais M. Seurel fit semblant de ne pas entendre.... Mais M.Seurel refroidit tout le monde en disant : « Allons ! Ce sera Moucheboeuf. » Et chacun regagna sa place en silence. (pp.24-26)

"누가 내일 프랑수아와 함께 마차를 몰고 라 가르 역에 가서 샤프팡티에 부부를 모셔오겠느냐?... 쇠렐 선생님의 물음에 10여 명이 일제히 소리쳤다. " 대장 몬느요 ! 대장 몬느요 !" 그러나 쇠렐 선생님은 못 들은 체했다. ... 그러나 쇠렐 선생님이 "자 ! 무슈뵈프가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자 학생들은 모두 낙심했다. 모두들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다.

<sup>13)</sup> “La Belle-Etoile est, là-bas, de l’autre côté du ruisseau, sur le versant de la côte, une grande ferme, que les ormes, les chênes de la cour et les haies vives cachent en été. Elle est placée sur un petit chemin qui rejoint d’un côté la route de La Gare, de l’autre un faubourg du pays.” (p.32)

François와 함께 그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모시러 갈 동행자를 찾는 과정에서 Seurel 선생님은 철저히 Agustin Meaulnes를 배제시킨다. 따라서 그의 모험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억압당하면서 그 표출수위가 조절된다. 즉, 학교라는 공간은 몽상의 세계와 규범과 규율을 지켜야 하는 현실의 세계가 공존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욕망의 적절한 분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지극히 정 반대의 성향을 지닌 두 세계가 한 공간 안에 공존하는 세계이며 이곳이 바로 Saint-Agthe이다. 이 지역은 학교라는 건물로 인해 지역 전체가 몽상과 현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지역 전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는 단지 학교라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생각하며 노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극히 현실적인 어른들의 세계 속에 꿈을 꾸며, 몽상하는 학생들이 뒤섞여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신의 극명한 두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학교라는 공간이 몽상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만을 혁명 기념일의 폭죽(le feu d'artifice du Quatorze Juillet)을 등장시켜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작가가 이 폭죽에 부여한 의미와 작품 속에서 이것의 역할이 학교라는 공간의 양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장인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Tiens, dit-il, j'ai trouvé ça dans ton grenier. Tu n'y avais donc jamais regardé ? »

Il tenait à la main une petite roué en bois noirci ; un cordon de fusées déchiquetées courait tout autour ; ç'avait dû être le soleil ou la lune au feu d'artifice du Quatorze Juillet. (p.18)

"자, 네 다락방에서 이걸 찾아냈어. 이게 거기 있는 줄 몰랐지 ?"라고 그가 말했다. 그의 손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검은색 작은 바퀴가 들려 있었다. 그 주위에는 풀어진 폭죽의 끈이 감겨 있었다. 그것은 해나 달

모양의 혁명 기념일용 폭죽이었음에 틀림없었다.

‘Le feu d’artifice’는 밝은 낮이 아닌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에야 비로소 그가 지니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을 통해 보는 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14)</sup> 그리고, 작가 Fournier는 이 터뜨려지지 않은 폭죽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의 양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자 했다.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사회적 관습과 규칙, 규율들을 배우며, 사실들을 배우는 동시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학생들이 그들의 미래를 꿈꾸거나, 몽상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Fournier는 이러한 딱딱한 공간 안에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인 몽상의 씨앗으로서 동일한 공간 안에 숨겨져 있던 아직 터지지 않은 두 개의 폭죽을 등장시키고 있다. 또한, 폭죽의 의미는 등장인물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가 왜 굳이 폭죽에 대해서 혁명 기념일(Quatorze Juillet)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에 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폭죽이란 물건은 흔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용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정확히 혁명 기념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쓰였던 폭죽이라고 이 폭죽이 사용되었던 시기를 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혁명 기념일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의 낡은 정치 제도와 억압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대승리였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이면 프랑스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며 이 기념일을 축하한다. 작가는 이 모습을 Meaulnes와 François에게 그대로 옮겨오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François의 억압되어 있던 어린 시절은 그의 가정환경에서 잘 볼 수 있다.

Moi qui n’osais plus rentrer à la maison quand j’avais un

---

<sup>14)</sup> "La lueur magique et irréaliste se montre plus clairement sur un fond de noir."

Marie Maclean, *Le Jeu Suprême-Structure et thèmes dans 《Le Grand Meaulnes》*, Librairie José Corti, 1973, p.73

accroc à ma blouse, je regardais Millie avec étonnement. (p.17)  
(....)

Je n'avais guère été, jusqu'alors, courir dans les rues avec les gamins du bourg. Une coxalgie, dont j'ai souffert jusque vers cette année 189..., m'avait rendu craintif et malheureux. Je me vois encore poursuivant les écoliers alertes dans les ruelles qui entouraient la maison, en sautillant misérablement sur une jambe...

Aussi ne me laissait-on guère sortir. Et je me rappelle que Millie, qui était très fière de moi, me ramena plus d'une fois à la maison, avec force taloches, pour m'avoir ainsi rencontré, sautant à cloche-pied, avec les garnements du village. (p.20)

옷에 구멍이 뚫리면 감히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나는 놀라운 눈으로 밀리를 쳐다보았다. (....)

나는 그 당시까지 동네 꼬마들과 거리에서 거의 뛰어놀지 않았다. 189X년경까지 앓았던 관절염은 나를 겁 많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한쪽 다리로 비참하게 경충거리며, 집을 둘러싸고 있던 골목길에서 재빠른 초등학교생들의 뒤를 쫓아가던 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나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다. 나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밀리가 동네 장난꾸러기들과 함께 한 발로 뛰어노는 나를 보자 사정없이 때리면서 여러 번 집으로 데려왔던 일이 생각난다.

한창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아야 할 어린 시절에 François는 고관절염을 앓았다. 그리고 이러한 François는 남의 이목과 자존심을 중요히 여겼던 그의 어머니 Millie<sup>15)</sup>에 의해 어린 시절 다른 이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좌절되고 억압되곤 했다. 이와 반대로, Meaulnes는 François보다는 자유롭고 활동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

---

<sup>15)</sup> Et ma mère, retirée jusqu'à la nuit dans sa chambre obscure, rafistolait d'humbles toilettes. Elle s'enfermait ainsi de crainte qu'une dame de ses amies, aussi pauvre qu'elle mais aussi fière, vînt la surprendre. (p.14)

Il aimait à lui faire plaisir, et parfois il suivait le bord de la rivière, jambes nues, pendant des kilomètres, pour lui rapporter des oeufs de poules d'eau, de canards, sauvages, perdus dans les ajoncs... Il tendait aussi des nasses... L'autre nuit, il avait découvert dans le bois une faisance prise au collet...(p.17)

그 아들은 그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서 때때로 물새나 들오리의 알을 그녀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맨발로 가시양골담초 속을 헤치며 강변을 따라 수십 킬로미터를 걷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물을 쳐놓기도 했는데, 어느 날 밤에는 숲에서 그물 올라미에 걸려든 꿩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마치, 어린 모험가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Meaulnes의 외적인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는 François처럼 그의 행동에 있어서 부모님의 억압과 제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다 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Meaulnes 역시 François와 마찬가지로 그가 처한 가정환경 속에서 심적인 억압을 받았다.

Veuve - et fort riche, à ce qu'elle nous fit comprendre- elle avait perdu le cadet de ses deux enfants, Antoine, qui était mort un soir au retour de l'école, pour s'être baigné avec son frère dans un étang malsain. Elle avait décidé de mettre l'aîné, Augustin, en pension chez nous pour qu'il pût suivre le Cours supérieur. (p.16)

그 과부이며 부자인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인 앙투안이 어느 날 저녁, 형과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더러운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아들 오귀스탱이 상급 학년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하숙을 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François의 어머니가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감추고자 그의 욕망을 억제했다면, Meaulnes의

어머니는 이미 두 번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의 남편과 막내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혹여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떠나간 이들에게 나눠졌어야 할 그녀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서 박탈되어 모두 Meaulnes에게로 전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집착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예로써, François의 눈에 Meaulnes를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새끼를 잃어버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암탉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e ne reconnaissais plus la femme aux cheveux gris, que j'avais vue courbée devant la porte, une minute auparavant, avec cet air suppliant et hagard de poule qui aurait perdu l'oiseau sauvage de sa couvée. (p.16)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마치 제 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린 암탉처럼 애원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François와 Meaulnes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은 외적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내적으로는 어머니에 의해 심적 억압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 이처럼, 서로 같은 심적 고통을 받던 두 명의 소년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그들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François는 그와는 전혀 다른 자립심이 강한 어린 시절을 보낸 Meaulnes를 만나게 되면서 고관절염도 나왔고, 그가 받고 있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Meaulnes 역시 자신에게 집착하던 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심적 부담감과 압박에서 벗어나 그 전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작가는 이 혁명 기념일의 폭죽을 복선으로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들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터지지 않은 혁명 기념일의 폭죽(Le feu d'artifice du Quatorze Juillet)의 양면적인 의미는

혁명 기념일(Quatorze Juillet)에서는 해방의 의미, 억압되어 있던 욕망의 분출을, 터지지 않은 폭죽(Le feu d'artifice)에서는 억압되어있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François와 Meaulnes의 드러나지 않은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이 다락방에 터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던 혁명 기념일의 폭죽을 통해 공간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 의미와 이 폭죽이라는 사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성향과 기능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억압되어 있는 몽상과 이를 표출 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의 두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몽상을 억압하는 공간인 학교 내에 잠재되어 있는 몽상의 씨앗의 역할을 터지지 않은 폭죽에 부여함으로써 학교라는 공간에 이중적인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과 동시에, 터지기 전과 터진 후의 기능과 부여된 의미가 다른 폭죽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해 두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aint-Agathe의 학교가 몽상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에는 바로 이 공간이 일반 가정집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Gaston Bachelard에 따르면, 집이란 공간은 우리의 몽상을 지켜주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이들로 하여금 몽상을 하도록 보호해 주기도 하고 평화롭게 꿈꾸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16)</sup> 이처럼 배움터이자 주거공간이며 놀이터로서의 역할들이 공존함으로써 이 공간은 현실과 환상이 한 데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 (2) 서커스 (La Cirque)

Saint-Agathe마을에서 몽상과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라는

---

<sup>16)</sup> "Dans ces conditions, si l'on nous demandait le bienfait le plus précieux de la maison, nous dirions : la maison abrite la rêverie, la maison protège le rêveur, la maison nous permet de rêver en paix."

Gaston Bachelard, op.cit., p.26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서커스가 진행 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서커스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의 마음으로 관람하는 공연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마력이 있다.

(....)

« le domaine du jeu est ainsi un univers réservé, clos, protégé : un espace pur. » Le récit contient non seulement de tels espaces voués au jeu, la cours de l'école, la maison de Frantz, le Domaine tout entier, par exemple, mais aussi la vraie vie de garçons reste inconnue des grandes personnes.<sup>17)</sup>

(...)그처럼 놀이 공간은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닫혀있고, 보호되는 공간으로, 순수의 영역이다. 이야기는 학교 운동장이나, 프란츠의 집, 영지처럼 놀이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 소년의 진짜 삶은 어른들의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 다시 말해 현실과 몽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 어른과 아이가 모두 하나의 마음이 되어 놀이를 즐기는 공간이 바로 서커스인 것이다. 이러한 서커스가 이 지역에서 공연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공간 안에 순수함과 몽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 서커스는 몽상의 세계를 대표하는 Frantz와 그의 집시 친구가 고요했던 마을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사건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작가가 이 지역에 잠재되어있던 몽상(rêverie)의 이미지를 좀 더 극대화 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Frantz와 집시의 마을 침투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라고는 고작해야 학교 내에 잠재워져 있던

---

<sup>17)</sup> Marie Maclean, op.cit., p.60

몽상의 씨앗에 그들이 가져 온 신비로운 물건들을 이용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역할과 잠시나마 이 물건들을 매개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면<sup>18)</sup> 이번엔 서커스를 통해 마을 전체에 몽상을 대표하는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여지껏 마을 안에 분리되어 있던 이성과 몽상의 경계를 무너뜨려 모든 이들이 몽상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서커스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서커스라는 것은 보헤미안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헤미안들이 이 마을에 침투해 들어오자 이와 함께 이들을 대표하는 서커스가 공연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Cirque와 보헤미안들은 왜 항상 함께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서커스라는 공연은 계속해서 한 장소에 머무르며 공연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보헤미안들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작가가 서커스라는 사건을 삽입한 또 한가지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Saint-Agathe는 이미 몽상과 현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라 이야기한 바 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현실이라는 공간 안에 몽상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리잡고 있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간 안에 점차 Meaulnes가 들어오고, Frantz와 보헤미안들이 침투하게 됨에 따라 자칫하면 이 공간 역시 몽상의 공간으로 장악될 수 있는 것을 서커스의 공연이 끝남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sup>18)</sup> Mais celui-ci ne devait pas se faire aussitôt oublier. Je me rappelle encore cet être singulier et tous les trésors étranges apportés dans ce cartable qu'il s'accouchait au dos. Ce furent d'abord les porte-plume 《 à vue 》 qu'il tira pour écrire sa dictée. Dans un oeillet du manche, en fermant un oeil, on voyait apparaître, trouble et grossie, la basilique de Lourdes ou quelque monument inconnu. Il en choisit un et les autres aussitôt passèrent de main en main. ... Alors, en quelques seconds, sans bruit, comme pour ne pas troubler le nouvel état de choses qui venait de se créer, toute la classe se glissa curieusement autour du maître qui penchait sur ce trésor sa tête demi-chauve, demi-frisée, et du jeune personnage blême qui donnait avec un air de triomphe tranquille les explications nécessaires. (pp.131-133)

아이와 어른이 모두 몽상이라는 하나의 시공간으로 묶이지만 이내 이 서커스가 막을 내림으로 인해<sup>19)</sup> 결국 다시 모두가 현실의 세계로 돌아와 각자의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서커스라는 사건은 현실의 공간 Saint-Agathe에 잠재해 있던 몽상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이 마을 전체가 몽상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와는 반대로 서커스의 찰나의 특성을 이용하며 현실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없는 몽상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단기간 동안만 현실에 머무를 수 있는 특징은 몽상의 매력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몽상이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몽상이 현실 안에서 극대화 되는 순간 다시 싹을 잘라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Saint-Agathe의 현실과 몽상의 공간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2. 이상과 우울의 공간 : Paris

학교라는 서로 상반되는 성향을 지닌 공간으로 인해 지역 전체가 양면성을 지니게 되는 공간이 Saint-Agathe였다면, Paris는 당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서로 상반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작품에서는 그려진다. Alain-Fournier가 이 작품을 썼던 프랑스의 20세기 초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로서 « 분열과 불안과 변화가 가속화되어 나온 세기 »<sup>20)</sup>라고 이야기되곤 한다. 19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으로 인해 한 때, 프랑스는 비약적인 경제의 발전이 뒤따르는 화려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지만, 이내 그에 따른 부작용의 여파가 사회 곳곳에 출현하기에

---

19) "Au moment du cirque, où se rejoint l'enfance et la maturité, le domaine et le village la réalité et l'illusion, les trios se croient unis, mais ils sont séparés sitôt après, une fois que le moment d'équilibre est dépassé."

Marie Maclean, op.cit., p.31

20) 이환, 정명환, 『Anthologi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신아사, 2008, p.223

이르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르주아들의 행태에 따른 부작용이었다.

부르주아들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얻은 자유와 평등의 구호가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19세기의 부르주아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이룬 사회적 변동과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그들의 부를 등에 업고 한 세기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세력이 바탕이 되어 나타나는 그들의 행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이러한 시선들은 프랑스 19세기 문학 작품들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세기의 문학 작품의 특징 중 하나로 사실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달라지는 부르주아 계급의 다시 말해 인간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기 위해 생겨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세기에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 사회 계층 간의 문제는 문학 작품들을 통한 문인들의 끊임없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는 사회 계층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인데, 지금으로 이야기 하자면 개발도상국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와 그 맥락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0세기에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 계층들 간에도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 발전에 대한 그 어떤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나타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 이런 사회적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대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Fournier 역시 다른 모든 19세기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수도 Paris를 밝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작품 안에서 어떤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질타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Paris라는

지역의 분위기를 특정한 사회 계층들, 즉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언급을 이용해 살리고 있을 뿐이다.

Alors un ouvrier qui passe dans l'obscurité plaisante à mi-voix :

« N'y va pas, ma petite, il te ferait mal ! »

Et nous sommes restés, tous les deux, interdits. (p.290)

그 때 어둠 속에서 지나가던 한 노동자가 작은 소리로 농담을 건넸다.

"아가씨, 가지 마쇼. 그 사람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할 거요."

우리 둘 다 어리둥절해 있었다.

작가는 당시 Paris의 분위기를 그려내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그가 던진 한 마디, “그를 따라가지 마시오,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할 거요!”라는 농담에서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범죄들과 이에 따라 흥흥해진 사람들의 민심에 대한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이 밖에도 Fournier는 천박한 차림으로 극장에 온 여인들을 “Tout autour de nous, il y avait des femmes trop décolletées.” (p.290)로 묘사하며 Paris의 화려한 발전 뒤에 얼룩져 있는 이면을 이러한 하위 계층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Une heure d'attente. - Je suis las. A la tombée de la nuit, un gardien de la paix traîne au poste voisin un voyou qui lui jette d'une voix étouffée toutes les injures, toutes les ordures qu'il sait. L'agent est furieux, pale, muet... Dès le couloirs il commence à cogner, puis il referme sur eux la porte pour battre le misérable tout à l'aise... Il me vient cette pensée affreuse que j'ai renoncé au paradis et que je suis en train de piétiner aux portes de l'enfer. (p.293)

한 시간의 기다림. 나는 지쳤다. 밤이 되자 평화의 사도가 온갖

욕설과 쌍소리를 퍼붓는 불량배를 파출소로 끌고 가고 있었다. 경찰은 잔뜩 화가 나 창백해져 말문이 막혀 있었다. 파출소 현관에 들었자 경찰은 그 불량배를 두들겨 패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낙원에서 쫓겨나 지옥의 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직까지 Paris의 얼룩진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던 작가는 끊임없이 욕을 해대는 불량배와 경찰서에 끌고 가 그를 흠씬 두들겨 패고는 밖으로 내동댕이치는 경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Paris를 « 지옥(l'enfer)»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sup>21)</sup>

작가는 그의 몽환적이며 동화 같은 성격이 강한 작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공간을 대조 표현법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순수성을 더욱 극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항상 안개가 끼어있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며,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언제나 축축한 느낌을 머금고 있는 우울한 Paris의 모습은 자칫 너무 conte de fée와 같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 작품에 실제 도시의 실질적인 모습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현실감을 더해준다. 이와 동시에, 현실감을 바탕으로 작품 분위기를 한 층 더 몽환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Fournier의 Paris는 Charles Baudelaire(1821-1867)의 『파리의 우울 *Le Spleen de Paris*』에 등장하는 Paris<sup>22)</sup>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21) j'ai renoncé au paradis et que je suis en train de piétiner aux portes de l'enfer.(p.293)

22) "그러나 과거의 예술가들이 외면한 복잡다단(複雜多端)한 덩어리, '인간과 돌들로 이루어진 기괴한 집적물'인 대도시, 파리의 풍경은 오히려 보들레르에게는 다른 차원의 매력있는 목가(牧歌)로 둔갑하게 된다. 그에게 목가는 바로 파리의 것이다. 보들레르의 '파리의 시'들은 목가적 삶을 염원하는 모든 도시인들에게 이제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고 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과, 그것을 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무한한 발산으로 새롭고 열렬한 미의 세계 - 시의 세계 - 를 창출한 점이 바로 그의 도시의 시가 가지는 의의이자, 업적이기도 하다. 즉, 시의 불모지라고 여겨왔던 비시적(非詩的)인 도시도 보들레르에 의해 충분히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신비로운 '꿈의 궁전 féeriques palais<FM, Paysage>'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맹미경, 「보들레르 시에 나타난 현대성과 우울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1999, p.17

당시 Paris가 문학 작품의 소재로 사용될 경우 대부분의 작품 속에 그려진 이 대도시의 모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 되고 있었다. 그 하나는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로이 힘을 얻고 지배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부르주아 계급들의 행태에 대한 고발의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또 다른 방식은 새로운 지배 세력들에 의해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다시 사회 안에서 지배당하게 되는, 혹은 그런 지배 안에서, 그런 지옥과도 같은 삶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을 꿈꾸며 이 변화하고 복잡한 대도시로 몰려드는 마치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모습과 닮아있는 프롤레타리아 계층들의 처참한 삶에 대한 내용들로 이뤄진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을 겪고 난 후의 프랑스 문학 작품 안에서 그려진 Paris의 모습은 낭만으로 충만한 Paris의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Fournier는 Baudelaire와 같은 방식으로 아직 과도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20세기의 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sup>23)</sup> 물질의 향락에 빠져 정신의 빈곤으로 가득 차 있는, 화려함 속에 비탄과 절규로 가득 차 있는 대도시 안에는 역으로 또 그 만의 희망과 몽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Fournier도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순수함의 상징인 Yvonne가 도시 안에 머물렀다는 것과<sup>24)</sup> 절제되지 않은 충동적인 몽상, 즉 쾌락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Frantz가 시간이 날 때면 거주했던 공간이 Paris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5)</sup>

Paris의 공간 중 Yvonne와 Frantz가 머물렀던 공간은 파리의 우울한 분위기, 천박하고 욕을 해대는 파리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23) Baudelaire 역시 『파리의 우울 Le Spleen de Paris』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비참함을 먹고 점점 비대해져 가는 대도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그의 작품들의 소재로 이용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Paris는 다른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이처럼 꿈을 꿀 수 없고, 몽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거대한 괴물 같은 도시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24) « En retour, dit-il, voici maintenant tout ce que je puis vous dire : je vous indiquerai la maison de Paris où la jeune fille du château avait l'habitude de passer le fêtes : Pâques et la Pentecôte, le mois de juin et quelquefois une partie de l'hiver. »(p.144)

25) Je sais, a-t-elle dit, qu'autrefois, dans cette maison, une jeune fille et son frère venaient passer les vacances.(p.185)

모습으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대도시에 내재되어 있는 순수함과 몽상의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Yvonne와 Frantz가 머물렀던 저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La maison que disait Frantz est un petit hôtel à un étage. La chambre de Mlle de Galais doit être au premier. Les fenêtres du haut sont les plus cachées par les arbres. Mais en passant sur le trottoir on les voit très bien. Tous les rideaux sont fermés...(p.183)

프란츠가 말했던 집은 작은 저택이야. 갈레 양의 방은 2층임에 틀림없어. 꼭대기 창문들은 나무들로 완전히 가려져 있지만, 보도로 지나가면 아주 잘 보여. 모든 커튼들이 내려져 있었는데...

Paris의 Yvonne와 Frantz의 저택은 작품 속에서 금방이라도 어느 동화 속에서 마법에 걸린 공주가 등장할 것만 같은 신비로운 공간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가 어느 19세기의 작품들처럼 저택을 통해 부르주아 계층을 비판하기 위해 채택한 소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건물이 초록빛으로 물든 잎사귀들 사이에 거의 가려지다시피 숨어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언뜻 언뜻 잎사귀들 사이로 보이는 건물의 모습은 Paris 안에 숨어 있는 꿈과 희망의 긍정적인 이면을 숨겨놓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게다가 이 두 상징적인 존재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공간은 묘사되고 있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외향뿐만 아니라, 작품 내내 그 어디에서도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와 주소, 혹은 가는 길도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sup>26)</sup> 이것은 이름도 모르고, 가는

---

<sup>26)</sup> "Ni le quartier ni le nom du boulevard ne nous sont donnés, et pourtant Meaulnes connaît l'adresse ; aucune description de cet hotel qui ressemble à toutes les demeures aristocratiques de la capitale... Le héros reste loin, sur le trottoir d'en face, et nous, lecteurs, nous restons aussi loin, dans un espace mal situé. L'image de Paris reste floue, car nous ne voyons de la ville que ce boulevard où Meaulnes attend celle qui ne viendra pas. Seul le nom même de Paris, comme nous l'avons vu au début de notre étude, confère à la scène un caractère d'authenticité." Marie-Madeleine Touzin, op.cit., p.63

길도 알 수 없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마법에 걸린 듯한 성의 모습이었던 신비의 영지(le domaine étrange)와 흡사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Meaulnes는 신비의 영지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주소를 알고 찾아간 것이다. 이것은 Meaulnes가 신비의 영지를 찾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장면이다. 이름없는 영지(le domaine sans nom)는 몽상과 환상이 집적(集積)되어있는 공간으로서 그가 지니는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Meaulnes가 겪었던 일장춘몽(一場春夢)처럼 독자가 느끼도록 하기 위한 기재(器財)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Paris에 꿈과 환상의 공간을 위치시켜 놓은 것일까? 위에서 우리는 작가가 그의 작품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Paris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을 통해 그의 작품 내에 현실성을 부각시키려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것은 Paris에 위치한 이 몽상과 환상의 공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극히 현실적인 Paris라는 공간 안에서 주소는 존재하지만, 그 공간을 찾았을 때 거주인이 없는 것은 현실 내의 현실적인 요소의 상실로서 그의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분위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이 저택을 통해서 작가는 Paris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몽상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지니고 있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열려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곳은 사랑에 빠진 여인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던 한 청년이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 그의 여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빠져 찾아오는 장소이자, 옛 사랑했던 사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의미도 담고 있다.

---

<sup>27)</sup> "Il faut que la réalité s'efface pour qu'il éprouve le Bonheur des rêves, fortement marqué par le présent « s'évanouissent.»" : Marie-Madeleine Touzin, op.cit., p.64

Cette fois tout espoir est perdu. Je le sais depuis hier soir. La douleur, que je n'avais presque pas sentie tout de suite, monte depuis ce temps. Tous les soirs j'allais m'asseoir sur ce banc, guettant, réfléchissant, espérant malgré tout. Hier après dîner, la nuit était noire et étouffante. Des gens causaient sur le trottoir, sous les arbres. Au-dessus des noirs feuillages, verdissés par les lumières, les appartements des seconds, des troisièmes étages étaient éclairés. …… Ah! Si la fenêtre noire d'Yvonne de Galais s'était allumée aussi, j'aurais osé, je crois, monter l'escalier, farapper, entrer…(p.185)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 나는 어제 저녁부터 그것을 알았어. 내가 그 당시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 그제야 느껴졌어. 그래도 매일 저녁 희망을 갖고 생각에 잠겨 동정을 살피고자 그 의자에 앉으러 가곤했지. 어제 저녁 식사 후의 밤은 칠흠 같았고, 날 숨막히게 했어. 사람들이 보도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불빛에 파란색을 드러낸 검은 잎사귀들 위로 저택 3,4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 … 아! 만일 이본 드 갈레의 어두운 창문에도 불이 켜졌다면, 나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지도 몰라…

Meaulnes는 불이 켜지지 않은 저택을 바라보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eaulnes는 어찌면 언젠가는 여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매일 밤 습관처럼 그 저택 앞을 지킨다. 여인을 만나지 못한 슬픔과 고통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치유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덧문까지 굳게 닫힌 채, 열려있지 않은 창문에 결코 불이 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저녁이면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 역시 Paris의 현실적 요소 안에 존재하는 몽상과 희망이라는 이면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만일, Meaulnes가 일반 현실 속에 사는 우리들처럼 실제로 행동했다면 결코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않는 몽상과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국 Paris는 지옥과 같은 현실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Je passe encore sous cette fenêtre, écrivait-il. J'attends encore, sans le moindre espoir, par folie. A la fin de ce froids dimanches d'automne, au moment où il va faire nuit, je ne puis me décider à rentrer, à fermer les volets de ma chambre, sans être retourné là-bas, dans la rue gelée. (p.187)

나는 아직도 그 집의 창문 밑을 지나다니고 있어. 일말의 희망도 없이 여전히 광기로 기다리고 있지. 가을의 추운 일요일, 어둠이 팔리기 시작할 때 나는 얼어붙은 거리로 나가 그 집에 다시 갔다 오지 않고는 내 방으로 되돌아올 수도 덧문을 닫을 수도 없었어.

Meaulnes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 Yvonne가 다른 이와 결혼을 했다는 Valentine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고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지만 그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한편에는 Yvonne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이 자리잡고 있게 된다. 그리고 작가는 절망과 결합된 막연한 희망을 이제는 광기 (folie)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전의 희망은 현실적인 근거, 즉 Frantz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만날 수도 있을 것이었다면, 이 광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일종의 집착적인 희망의 형태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은 몽상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몽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몽상을 통해 우리는 본 연구서의 주인공 Meaulnes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l'espoir)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은 이렇듯 몽상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사색을 통해 우리는 끝없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몽상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데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sup>28)</sup> 인간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어려움을 극복한다. 다시 말해, 몽상을 통해 행복했던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시간 여행인 추억을 하며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Le Grand Meaulnes*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현실 세계 안에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등장인물이 몽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대표적으로 Yvonne와 Frantz의 저택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공간은 현실 안에서 몽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그 안에서 삶에 대한 또 다른 의지인 추억을 찾아 볼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추억을 한다’라는 것은 ‘한 공간 안에 공존하는 진행 중인 현재와 완벽하고 경이로우며 이상화된 과거라는 시간이 함께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Le Grand Meaulnes*에서 몽상을 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추억하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Paris에 위치하고 있는 Yvonne와 Frantz의 저택이다. 이곳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하급계층의 삶을 살아가던 Valentine이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으로 이 저택의 그 두 번째 기능을 시사한다.

Au moment où j'allais partir, une jeune fille, ou une jeune femme - je ne sais - est venue s'asseoir sur un des bancs mouillés de pluie. Elle était vêtue de noir avec une petite collerette blanche. Lorsque je suis parti, elle était encore là, immobile malgré le froid du soir, à attendre je ne sais quoi, je ne sais qui. Tu vois que Paris est plein de fous comme moi.  
(p.184)

<sup>28)</sup> "Notre but est maintenant clair : il nous faut montrer que la maison est une des plus grandes puissances d'intégration pour les pensées, les souvenirs et les rêves de l'homme. Dans cette intégration, le principe liant, c'est la rêverie."

Gaston Bachelard, op.cit., p.26

<sup>29)</sup> "Deux temps s'opposent dans *Le Grand Meaulnes* : un temps parfait, magnifié, celui d'un passé idéalisé ; et un autre temps, le temps réel qui se déroule, et dans lequel on tente de retrouver le premier."

Adeline Lesot, op.cit. , p.40

내가 막 떠나려는 순간에 처녀인지 젊은 부인인지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와서 비에 젖은 벤치에 앉았어. 그녀는 하얀색의 작은 깃이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 내가 자리를 뜨는데도 그녀는 짹짹한 저녁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짝않고 거기 있었지. 그녀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어. 파리가 나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비가 내리는 저녁 대도시 Paris의 우울한 분위기는 ‘하얀색의 작은 깃이 달린 검은색 옷’의 수수한 상복 차림을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하급 계층의 우울하고 힘겨운 삶을 느끼게 한다. 그런 여성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느 귀족의 저택 앞을 찾아와 하염없이 앉아 몽상을 하고 있다. 이내 우리는 몽상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과거의 어느 순간을 추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동화 속의 여주인공처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한 감정에 빠져 또 다른 내일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 때 Valentine이 회상하고 있는 과거는 완벽하고 이상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은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는 현재의 삶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 회상은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sup>30)</sup> 왜냐하면 Meaulnes가 Yvonne를 볼 수 있다는, 좀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이유와도 같은 모험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매일같이 저택 앞을 찾아왔던 것처럼, Valentine 역시 Meaulnes처럼 일과가 끝난 시간이면 어김없이 저택 앞을 찾아와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 하루하루의 삭막한 대도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저택은 그녀가 Meaulnes라는 인물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이고, 완벽하고 이상화된 과거의 시간과

---

30) "Mais maintenant, dans le souvenir retrouvé par la rêverie, on ne sait par quel synvretisme, la mansarde est petite et grande, chaude et fraîche, toujours réconfortante." : Gaston Bachelard, op.cit., p.29

현재 진행 중인 시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서 Paris라는 대도시의 우울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설에 현실성과 그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몽환적인, 즉 소설의 허구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대도시 Paris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저택은 Paris라는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물들에게 추억과 희망을 선사하며 동시에 몽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작가는 이 저택이라는 공간을 통해 독자들에게 Paris라는 대도시가 그저 삭막한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도 몽상과 이상의 불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주고자 한다. 즉, 저택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 Fournier는 현실 안에서 작중인물들의 또 다른 몽상과 그들이 품고 있는 내면의 시선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 1-3. 시작과 끝의 공간 : *Domaine sans nom - Sablonnières*

Sablonnières 지역은 Meaulnes가 그의 첫 번째 모험을 시작하면서 이름 모를 신비의 영지로 명명되면서 작품 안에 그의 첫 등장을 알린다. 이 지역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신비의 영지라는 제목에서 풍겨지는 이미지처럼 온전히 몽상으로 뒤덮혀 있는 몽상과 환상의 공간 그 자체로 그려진다. 하지만, 작품의 후반으로 가면서 Sablonnières라는 정확한 그의 지명이 등장하며 결국엔 이 공간도 역시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린다.<sup>32)</sup> 결국 Sablonnières 역시 지금까지

---

31) "Dans son roman, l'objet existe donc non pas pour sa valeur réelle, mais pour attirer les regards des personnages de façon à ce qu'ils puissent en dégager l'aspect magique et merveilleux."

H.-A. Bouraoui, *Structure intentionnelle du "Le Grand Meaulnes" : vers le poème romancé*, Librairie Nizet, 1976, p.17

32) "La maison des Sablonnières occupe une place ambiguë dans le roman, constituant ce qu'on

살펴보았던 Paris나 Saint-Agathe지역들처럼 몽상과 현실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몽상과 현실의 우울함이 한데 뒤섞인 공간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히 이 Sablonnières라는 지역은 작품 안에 등장하는 다른 여느 지역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신비의 영지’에서 ‘이상한 영지’, ‘이름 없는 영지’로 명명되다가 그의 정확한 명칭이 드러나는 것에서 쉽게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작품 안에 등장하는 다른 공간들이 모두 현실 안에 잠재되어 있는 혹은 현실 안으로 침투되는 몽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유일하게 이 지역은 다른 여느 지역들과는 달리 몽상의 공간 안에 현실이 침투됨에 따라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몽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공간에는 타락과 끝의 이미지 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현실과 이성만이 존재할 것 같은 공간 안에 의외의 몽상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공간 안에도 타락과 끝의 이미지와 동시에 시작이라는 이미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마치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새삼 증명이라도 해주듯 Sablonnières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몽상과 이성의 공간’이라는 초점 보다는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분석할 것이다.

### (1) 모험(l'aventure)의 시작과 끝

Sablonnières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현실이라는 요소가 침투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머무르는 작중 인물들이 모험을 시작하도록 한다. 다른 현실의 공간에서는 몽상이 침투함으로써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 만큼은 몽상의 공간 안에

---

pourrait appeler un lieu mixte. Elle se rattache en effet à l'espace du rêve puisqu'elle est une partie du Domaine découvert au cours de l'étrange aventure ; en même temps, elle appartient au réel ; Yvonne de Galais et Meaulnes y vivent, mariés. Il faut donc définir les Sablonnières comme le Domaine sans nom qui a reçu son nom une fois qu'il a été retrouvé."

Adeline Lesot, op.cit., p.51

현실과 이성이 침투해 들어옴에 따라 모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같다. 이 모두 몽상을 쫓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실의 공간 안에서 몽상을 쫓기 위해 시작하는 여행이나 몽상의 공간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몽상의 공간을 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는 것 모두 결론적으로는 몽상을 쫓는다는 것에서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모든 공간들이 몽상을 하는 과정 중에 거치게 되는 간이역들이라면 이 신비의 영지 혹은 Sablonnières라 불리는 이곳은 몽상의 공간을 쫓는데 있어서 시작과 끝의 순환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eaulnes의 모험 여정을 통해 이 영지의 변화를 살펴보자.

Meaulnes는 작품의 초반에서는 모험을 동경하는 사춘기 청소년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 처음부터 몽상을 쫓는 모험가로서 그려지지 않았다.

Ainsi peu à peu, s'embrouillait la piste du grand Meaulnes et se brisait le lien qui l'attachait à ceux qu'il avait quittés. Découragé, presque à bout de forces, il resolute, dans son désespoir, de suivre ce sentier jusqu'au bout. ... Il songea alors à la couverture de la jument qu'il avait laissée dans le chemin, et il se sentit si malheureux, si fâché contre lui-même qu'il lui prit une forte envie de pleurer... (p.68)

그리하여 점점 몬느는 길을 잃었고, 그가 떠나온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낙담하고 거의 기진맥진해진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 오솔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다. ... 그 때, 그는 길에 내버려둔 말에게 씌웠던 담요를 생각했다. 그는 대단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신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Meaulnes는 François의 조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그만의 모험을 하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다. 다시 원점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모험을 시작한 Meaulnes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일을 저지른 자신을

원망하고 책망하기에 이른다. 이를 두고 과연 우리는 Meaulnes가 처음부터 진정한 몽상가이자 모험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잠깐 그가 신비의 영지를 찾아가기 이전에 했던 모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간 그가 했던 모험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 집 앞의 수풀을 헤치고 다녔던 것과 학교라는 폐쇄되어 있는 공간 안을 이곳, 저 곳 누비고 다녔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픈 안정적인 일탈이었을 뿐이다. 이런 그를 진정한 모험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계기가 바로 신비의 영지인 것이다. 이 신비의 영지를 통해 그는 진정한 몽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보았고 진정 그것을 동경하게 되었다.

Meaulnes가 이처럼 몽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성숙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는데는 신비의 영지 내에 위치해 있는 « La chambre de Wellington »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Meaulnes avait fermé la fenêtre, tant à cause du froid que par crainte d'être aperçu du dehors. Il alla soulever le Rideau du fond et découvrit un grand lit bas, couvert de vieux livres dorés, de luths aux cordes cassées et de candélabres jetés pêle-mêle. Il repoussa toutes ces choses dans le fond de l'alcôve, puis s'étendit sur cette couche pour s'y reposer et réfléchir un peu à l'étrange aventure dans laquelle il s'était jeté. (p.74)

출기도 했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문은 창문을 닫았다. 그는 안쪽에 있는 커튼을 걷으러 갔다. 그리고 나지막한 큰 침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위에 금박을 입힌 낡은 책들과 현이 끊어진 비파, 뒤죽박죽이 된 채 던져진 촛대들이 널려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코브 안쪽으로 밀어 넣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자신이 뛰어난 이상한 모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침실에 있던 알코브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물건들과 함께 잠들었던 Meaulnes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 알 수 없는 대화 »를

엷든게 되는 동시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된다. 이 빛 속에서 그의 의식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인데<sup>33)</sup> 이는 Meaulnes가 현실이라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 몽상의 세계 속에서 깨어나 이에 따른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마치 알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오리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것을 자신의 엄마라 여기고 따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방 안에서는 그의 새 의식과 함께 Meaulnes가 청소년기라는 알에서 깨어나 진정한 모험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Meaulnes entendit craquer une allumette. Celui qui avait parlé le dernier, et qui paraissait être le chef, reprit d'une voix traînante, à la façon d'un fossoyeur de Shakespeare :

« Tu mets des lanternes vertes à la chambre de Wellington. T'en mettrais aussi bien des rouges... Tu ne t'y connais pas plus que moi! » (p.77)

몬느는 성냥 굵는 소리를 들었다. 방금 말한, 두목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 연극의 무덤 파는 인부처럼 느린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초록색 초롱들을 웰링턴의 침실에 켜봐. 붉은색들도 켜놓고... 넌 나보다 더 여길 잘 모르자나!"

작가는 붉은색과 초록색의 조명을 켜 둔 웰링턴의 침실에 들어온 두 명의 보헤미안들을 무덤을 파는 인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선 웰링턴의 침실에 켜 둔 조명을 살펴보도록 하자. *Le Grand Meaulnes*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색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작품 내에서는 이 두 가지 색이

---

<sup>33)</sup> "Dans cette alcôve, Meaulnes entend d'abord «de confuses paroles». La nuit et la clarté enveloppent en même temps le héros. C'est dans l'obscurité, paradoxalement, qu'a lieu l'éveil de sa compréhension. C'est une sorte de naissance de la connaissance rappelant le vers de Baudelaire «Vaste comme la nuit et comme la clarté»." H.-A. Bouraoui, op.cit., p.61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색이 집약되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웰링턴의 침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색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예부터 붉은색은 피와 연관되어 있는 색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역동적인 힘을 부여하는 색채로 사용되었다.<sup>34)</sup> 초록색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으로 보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안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서양에서는 이 초록색이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이 초록색이 경계해야 할 대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sup>35)</sup>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조명들로 이뤄진 공간 안은 결국 인간의 심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는 이미 이러한 색채들을 이용해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이뤄지기도 하고, 사회적 기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작가 역시 일찍이 색채가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웰링턴의 침실이라는 공간의 조명등을 통해 이 공간이 등장인물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Fournier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명등이 아닌 녹색과 붉은색 등이 함께 밝혀져 있는 공간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명등을 사용하여 아직 안전한 모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Meaulnes의 변화를

34)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붉은색의 상징은 '생명력'이다. 원시시대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피 흘리면서 죽는 짐승을 보며 혹은 상처 입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를 보며, 인간은 붉은색에서 강렬한 생명의 힘을 느꼈다. 또한 생존경쟁 사회에서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투쟁정신을 깨달았다. ... 그러하기에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 혁명을 도모한 사람들은 붉은 피로 맹세를 하거나 붉은 포스터로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혁명이 이뤄지려면 역동적인 힘이 필요했던 까닭이다."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살림, 2010, p.76

35) "전통적으로 서양인들은 녹색을 '자연 또는 순수한 동심'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림칙하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을 상징하는 색으로 보았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울창한 삼림의 밤 분위기에 기인하는 바, 어두운 밤 달빛에 비춰진 질푸른 숲은 음산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무서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빈번하게 유럽을 침략하여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이슬람 문명의 상징색이기 때문이다."

박영수, *Ibid.*, p.89

암시하는데 이와 같은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Meaulnes는 이 공간 안에서 경계되어야 할 충동적인 세계 다시 말해, 모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 마치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듯한 새로운 모습으로 그의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이 조명등을 통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Meaulnes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이 방안을 밝히고 있는 붉은색과 초록색의 조명등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침입해 들어 온 두 명의 보헤미안들을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등장하는 무덤을 파는 인부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헤미안들의 이미지는 방랑자이자 자유인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서는 보헤미안들을 마치 어떤 이의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Meaulnes가 지니고 있던 미성숙함과 진정한 모험에 대해 지니고 있던 두려움과 경계심들의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죽음의 사도들이 밝혀 둔 붉은색과 초록색 등이 혼합되어 있는 웰링턴의 침실이라는 공간의 궁극적 역할은 아직 미성숙기에 머무르고 있는 Meaulnes의 죽음과 이 죽음을 통해 새로이 태어날 그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신비의 영지 안에서 시작된 몽상을 쫓는 여행은 이 영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의 시작과 끝을 반복한다. 3막 7장의 « 결혼식 날 »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서로 만나게 된 Yvonne와 Meaulnes가 결혼식을

<sup>36)</sup> cf) Dans la première partie, Ganache et Maloyau, qui ressemblent aux deux “fossoyeurs de Shakespear” préparent la tombe de l’adolescence dans la chambre de Wellinton. Cette suggestion de la mort de l’adolescence préfigure la tentative de suicide de Frantz dans la première partie. Dans la deuxième, la mort nous est présentée sous la forme du «cortège d’un enterrement venu du fond de la campagne» (p.132). C’est à ce moment même que Meaulnes décide de quitter Sainte-Agathe, comme si le cortège lui donnait le signal du départ, lui indiquant que son rêve du domaine mystérieux est irréalisable et qu’il est temps qu’il parte pour de nouvelles aventures. H.-A. Bouraoui, op.cit., p.41

올린 후 다시 이 영지로 돌아와 그의 모험을 끝내고 한 곳에 정착해 살아갈 그의 모습을 그려낸다. 하지만 이내 이 장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Meaulnes는 여전히 15세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친구 Frantz에 의해 다시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험의 이유가 되었던 Frantz를 찾고 난 후에 돌아온 Sablonnières에서 그는 모험을 끝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그의 딸을 안고 모험을 떠나는 뒷모습이 그려진다. 결국, 이 Sablonnières의 영지는 Meaulnes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몽상의 공간으로서 그가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던 곳인 동시에 다시금 이내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몽상과 순수함의 붕괴와 재탄생

이 영지에서는 모험(l'aventure)의 시작과 끝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생명의 죽음과 탄생, 다시 말해 순수함과 몽상의 종말과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 내에서 순수함으로 상징되고 있는 Yvonne의 죽음과 그녀의 딸의 탄생을 통해 볼 수 있다.

순수함과 몽상 간에는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기발하고 영똥한 상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피터 팬」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피터 팬」에 등장하는 몽상의 세계인 네버랜드는 비단 이 작품 안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Fournier의 작품 안에서도 바로 이 신비의 영지(le domaine mysté가덜)가 「피터 팬」의 주요 배경 무대인 네버랜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서 잠깐 「피터 팬」의 내용을 상기해 보자. 「피터 팬」에 등장하는 네버랜드라는 공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몽상에 대한 굳은

믿음이고 이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만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등장한다. 몽상에 대한 믿음과 이미 순수한 마음은 상실한지 오래인 후크 선장과 그 외 어른들은 모두 이 세계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등장할 뿐이다. 신비의 영지에서도 이는 네버랜드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Frantz의 엉뚱한 몽상으로 점철되어 있던 공간이 그의 탈주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이 몽상의 세계에서 순수함을 지켜내고 있던 Yvonne에게 점점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오빠 Frantz가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해 더 이상 몽상만 하며 지낼 수 없게 된 Yvonne는 점차 현실을 깨닫게 되고 아직까지 그녀가 지냈던 몽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며 지쳐가고 순수함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현실이 몽상의 공간 안으로 침투함<sup>37)</sup>에 따라 순수함의 존재에도 타격이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Jamais je ne vis tant de grâce s'unir à tant de gravité. ... Je ne remarquai qu'un défaut à tant de beauté : aux moments de tristesse, de découragement ou seulement de réflexion profonde, ce visage si pur se marbrait légèrement de rouge, comme il arrive chez certains maladies gravement atteints sans qu'on le sache. Alors toute l'admiration de celui qui la regardait faisait place à une sorte de pitié d'autant plus déchirante qu'elle surprenait davantage. (p.204)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우아함과 근엄함이 어우러져 있는 여인을 보지 못했다. ...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에 흠이 하나 보였다. 가령 슬프거나 실망했을 때, 혹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순간에 그

---

37) « Ce n'est plus un Domaine, avait-il dit. On a tout vendu, et les acquéreurs, des chasseurs, ont fait abattre les vieux bâtiments pour agrandir leurs terrains de chasse ; la cour d'honneur n'est plus maintenant qu'une lande de bruyères et d'ajoncs. Les anciens possesseurs n'ont gardé qu'une petite maison d'un étage et la ferme. Tu auras bien l'occasion de voir ici mademoiselle de Galais ; c'est elle-même qui vient faire ses provisions, tantôt en selle, tantôt en voiture, mais toujours avec le même cheval, le vieux Bélisaire... C'est un drôle d'équipage! » (pp.201-202)

깨끗한 얼굴은 마치 중병에 걸렸을 때처럼 약간 붉은 대리석 무늬색으로 아무도 모르게 변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감탄은 이내 연민의 감정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녀가 많이 놀랐을 때보다도 더욱 애절해 보였다.

이는 Frantz가 신비의 영지를 떠난 후 처음으로 묘사되는 Yvonne의 모습이다. Yvonne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Meaulnes가 처음 신비의 영지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와 같은 ‘우아함’(tant de grâce)를 지니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그녀만이 지니고 있던 아름다움은 다른 슬픔과 어두운 이면으로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Yvonne를 처음 만나고 François가 그녀에게서 느낀 것은 아름답다는 감탄 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Yvonne가 그녀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Yvonne가 여전히 그녀만의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그녀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그녀를 지탱할 수 있는 몽상을 유발하는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던 사물들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Et puis j'apprendrais aux garçons à être sages, d'une sagesse que je sais. Je ne leur donnerais pas le désir de courir le monde, comme vous les ferez sans doute, monsieur Seurel, quand vous serez sous-maître. Je leur enseignerais à trouver le Bonheur qui est tout près d'eux et qui n'en a pas l'air...» (p.206)

“나는 아이들이 현명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르칠 거예요. 당신도 보조교사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아이들이 세상을 뛰어다니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행복이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 외딴 곳에서 찾지 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이처럼 순수함과 몽상의 세계를 겨우 지켜나가던 이 공간 안에서 Yvonne는 마치 피터 팬처럼 15살의 나이에 멈춘 채 몽상만을 뒤쫓아 다니다 결국 가문을 몰락시키고 마는 오빠를 원망이라도 하듯 훗날 아이들이

“외딴 곳에서 (행복을)찾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그녀가 순수함을 잃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몽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 결국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그리고 몰락한 가문에서 생활하며 현실의 장벽에 부딪친 Yvonne는 그 동안 자신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이 몽상의 세계를 부정하고 거부하기 시작한다. Yvonne 그녀 스스로 이 세계를 거부함으로 인해 결국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던 몽상이라는 방어벽은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 그녀 또한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감과 동시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즉, 꿈꾸는 것을 부정하는 일은 결국 순수함의 파면을 초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Sablonnières영지 역시 몰락한 대도시 사회의 모습 안에 여전히 희망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순수함의 타락 안에서 또 다른 강력한 순수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Yvonne와 Meaulnes 즉, 순수함과 몽상을 쫓는 자 사이에서 태어난 새 생명을 통해 이야기한다.

---

<sup>38)</sup> "Pour cette raison la faute de Valentine, ainsi que celle de Meaulnes, n'est pas une faute charnelle mais une faute autrement grave aux yeux de Fournier, le manque de foi qui fait écrouler le monde fragile de l'illusion." : Marie Maclean, op.cit., p.43

## 2. 인물의 양면성

*Le Grand Meaulnes*에서 등장하는 양면성은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인물 안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시대부터 우리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을 해왔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성무 성악설’이라는 이론을 이끌어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의 상태라는 내용이다. 즉, 인간의 내면의 모습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출현하곤 한다. 동일한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그 상황에 부딪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내면은 하얀 순백의 도화지와 같은 상태로, 역으로 말하자면 모든 성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성향의 표출은 단지 상황 속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나타나곤 한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사자성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논다는 뜻으로,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주변 친구들을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한 인간의 주변인물들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이 작품 속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 2-1. 이상에서 현실로 : Yvonne

*Le Grand Meaulnes*에 등장하는 Yvonne는 이상적인 여인(*la femme idéale*)<sup>39)</sup>이라 정의되곤 한다. Yvonne라는 인물은 Alain-Fournier의 기억

---

39) "Yvonne de Galais est idolâtrée comme une vierge, son hauteur est « le paradis enfantin » que poursuit Meaulnes."

김희명, 「L'image de la femme idéale chez Alain-Fournier」, 『성신연구논문집 제36집』, 1998, p.52

속에 순수함의 존재로 남아있던 실존 인물인 Yvonne de Quièvecourt를 모델로 삼았다.<sup>40)</sup> 이 실존 인물은 Alain-Fournier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로 각인되었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작품 속에도 고스란히 묻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작가는 Yvonne와 Meaulnes의 첫 만남에서 그가 Yvonne de Quièvecourt와 처음 만났던 장면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된다.

Et lorsqu'elles descendirent sur l'embarcadère, elle eut ce même regard innocent et grace, qui semblait dire : « Qui êtes-vous? Que faites-vous ici? Je ne vous connais pas. Et pourtant il me semble que je vous connais ».

….. Un à un, sur le passage des dames, qui paraissaient être la châtelaine et sa fille, les jeunes gens saluaient profondément, et les demoiselles s'inclinaient. Etrange matinée! Etrange partie de plaisir! ….

La vieille dame resta sur la rive, et, sans savoir comment, Meaulnes se trouva dans le même yacht que la jeune châtelaine. (p.96)

그리고 선착장에 닿았을 때 그녀는 때 묻지 않은 엄숙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여기서 뭘 하는거죠? 난 당신을 모르지만, 아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 성의 여주인과 딸처럼 보이는 두 여자가 지나가자 청년들 한 사람, 한사람이 정중히 인사를 했고, 그녀들도 고개를 숙였다. 이상한 아침이었다. 이상하게 즐거운 놀이 계획이었다. … 늙은 부인이 강가에 서 있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문드는 성주의 딸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

<sup>40)</sup> “Tout au long de cette période, il ne cesse pas de penser à Yvonne de Quièvecourt. C'est en cette année 1912, en septembre, qu'il rédige à son intention une lettre qu'il n'expédiera pas et qu'il portera sur lui : «Je n'ai pas cessé de vous chercher… Les plus beaux jours de ma vie sont ceux où j'ai pensé le plus ardemment à vous..., si ardemment, si purement qu'alors j'espérais presque vous rencontrer tout d'un coup par miracle.» ”

Pierre Suire, *Alain-Fournier au miroir du Le Grand Meaulnes*, Seghers, 1988, p.50

Yvonne의 처음 등장을 보고 있노라면, 독자는 이내 동화책을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고 만다. Yvonne의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의 모습처럼 신비롭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sup>41)</sup> 이 장면에서 우리는 Yvonne의 첫 등장이 새벽 시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그녀에게 홀린 듯 끌려 다니는 Meaulnes의 모습과 눈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역시 작품에 허구성을 더해주는 요소로 Yvonne의 모습을 한층 더 신비롭게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새벽 시간 Yvonne의 첫 등장은 그녀의 역할을 좀 더 확고히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작가는 Yvonne를 단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시키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새벽은 어슴푸레한 빛을 머금고 있는 시간, 모든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숭고함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시간<sup>42)</sup>으로, 이 시간에 Yvonne가 첫 등장한다는 것은 Yvonne에게도 순수함과 숭고함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가는 Yvonne를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 끊임없이 몽상과 순수함이 재탄생 될 것임을 이 시간 대에 그녀를 첫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했다.

비록, 작가는 Yvonne의 첫 등장을 여신의 이미지로 그려냈지만 작가 역시, 결국엔 그녀 또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Yvonne를 절대 순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작품의 주인공격인 Meaulnes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Yvonne의 순수성은 온전히 Meaulnes와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성향이며 작품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Yvonne의 모습에 Meaulnes의 생각이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

41) “Si l’Yvonne de la première apparait, à première vue, comme une “princesse lointaine” est une fée,…” : Marie Maclean, op.cit., p.152

42) “새벽의 빛은 밝음과 어둠이 혼재되어 어슴푸레한 빛이다. 그것은 새롭게 탄생했다는 점에서 순수하고 신선한 빛이다.”

윤경원, 「P.Valery의 시에 나타난 빛과 자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p.9

Meaulnes는 Yvonne를 순수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

Meaulnes가 Yvonne를 순수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에는 물론 그들의 첫 만남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이뤄질 당시, Meaulnes의 상황도 그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작용한다. 환상 문학 이론가인 Rosemary Jackson에 따르면, 환상<sup>43)</sup>이란 무의식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Meaulnes는 항상 현실과 몽상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환상에 빠져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Meaulnes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닌,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이 환상들은 모두 신비의 영지로 가는 길에서 혹은 신비의 영지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다. 이처럼 환상 속에 빠져 지내던 Meaulnes에게 동화 속 주인공처럼 나타난 Yvonne의 모습은 그녀를 그만의 환상 속 여인으로 재탄생 시키기에 충분한 듯 보인다.

다시 말해, 그녀의 현실성은 Meaulnes와의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순수한 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면서 작품 내에서 순수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 뿐, 그녀 역시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Yvonne와 François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자.

Mais avec une sorte de regret et d'animosité contre je ne sais quoi de mystérieux dans sa vie, la jeune demoiselle poursuivit :  
(p.206)

그녀의 인생에는 뭔지 모르지만 신비로운 어떤 것과 상반되는 일종의 회한과 증오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했다.

---

43) “그녀가 정의하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세계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간사회의 규칙과 인간의 무의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환상이다.”  
서병철, 「환상문학의 텍스트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논문, 2006 ,pp.6-7

만일, Yvonne가 절대 순수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함을 보여야만 했을 것이다. 물론, François도 Yvonne와의 첫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서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과 근엄함을 본다. 그러나, François는 그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비춰지고 있는 또 다른 증오와 회한의 모습도 함께 본 것이다. 이러한 증오와 회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Yvonne에게 묻어있는 또 다른 현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현실에 물들어 있는 모습은 신비의 영지가 현실에 잠식되기 이전에도 Meaulnes와의 만남을 통해 잠시 내비춰진다.

Moins hautaine et moins grave, maintenant, elle parut aussi plus inquiète. On eût dit qu'elle redoutait ce que Meaulnes allait dire et s'en effarouchait à l'avance. Elle était auprès de lui toute frémissante, comme une hirondelle un instant posée à terre et qui déjà tremble du désir de reprendre son vol. (p.99)

전보다는 덜 오만하고 덜 근엄한 태도였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뭔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고, 미리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땅에 앉은 제비가 그새 다시 날아가려고 떠는 것처럼 그의 곁에서 떨고 있었다.

만일 그녀가 현실과는 타협할 줄 모르고 몽상과 순수함의 세계만을 지향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녀는 오히려 Meaulnes와의 대화를 기뻐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Yvonne에게는 증오와 회한의 모습뿐만 아니라, Yvonne에게 비춰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Meaulnes의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비춰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도 현실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Meaulnes는 Yvonne의 눈빛을 통해 그녀가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뿐만 아니라, Meaulnes와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Yvonne는 그가 앞으로 무슨 말을 이어갈지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Yvonne가 Meaulnes를 통해 Frantz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Frantz는 Yvonne의 오빠이자, 무의식의 세계에 온전히 흡수된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Frantz에 의해서 Yvonne역시 그녀의 순수성을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역으로 그녀는 순수함을 지키는 동시에 무의식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Meaulnes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에게서도 자신의 오빠와 같은 몽상가적인 기질을 발견하고 불안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무의식의 세계 속에 살면서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며 Yvonne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을 작중 인물들에 대입해 보도록 하자. Frantz는 작품 내에서 충동적으로 욕구를 표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본능(Ça)’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Yvonne는 이러한 무의식의 무분별한 분출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데, 이것은 ‘자아(moi 44)’의 기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Yvonne의 이러한 역할은 다음의 지문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Le seul regret que lui inspirât le passé, c'était, je pense, de n'avoir point encore été pour son frère une confidente assez intime, puisque, au moment de sa grande débâcle, il n'avait rien osé lui dire non plus qu'à personne et s'était jugé perdu sans recours. Et c'était là, quand j'y songe, une lourde tâche qu'avait assumé la jeune femme – tâche périlleuse, de seconder un esprit follement chimérique comme son frère ; tâche écrasante, quand il s'agissait de lier partie avec ce coeur aventureux qu'était mon ami le grand Meaulnes. (p.263)

---

44) “Actif, il(le moi) accomplit non seulement de fonctions perceptuelles, adaptatives et de synthèse, mais surtout il puisse dans le Ça la plus grande partie de sa libido, et même, comme Freud l'a souvent répété, il ambitionne de s'appropriier le règne obscur du Ça, de civiliser le Ça.” : J.-D.Nasio, op.cit., p.106

단 한 가지 지나간 과거에서 후회되는 일은 오빠와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았다. 오빠는 집을 영원히 떠날 때에도 그녀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 판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오빠처럼 극도로 몽상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때 갖게 되는 위험한 짐이었으며, 모험을 즐기는 내 친구 대장 몬느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됐을 때 생기는 몹시 힘든 짐이었다.

비록, Yvonne는 Meaulnes와 Frantz의 자제력 없는 욕구 분출을 억제하는 일에는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 그리고 Yvonne는 이들의 실패된 자아(moi)로 묘사된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극도로 몽상가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을 구제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Yvonne는 이들의 ‘자아(moi)’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라는 기제는 본능에 기반을 두고 그로부터 파생된 무절제한 욕구 충족을 억압하는 기제라고 설명한다.<sup>45)</sup> 이러한 관점을 두고 본다면, 왜 Yvonne를 이들의 실패된 자아라고 이야기하는지 명확히 설명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왜 Yvonne가 Meaulnes의 몽상가적인 기질에 두려움을 느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Yvonne의 현실성, 몽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모순되게도 극단적인 몽상주의자인 Frantz로 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뚜렷이 드러나는 Yvonne의 현실성은 몽상가적인 기질이 풍부한 Meaulnes에 의해 몽상(rêverie)의 저 편으로 감춰지고 말았을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2. 현실에서 몽상으로 : Valentine

몽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Meaulnes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Valentine이다. Valentine는 Yvonne와 대조되는

---

<sup>45)</sup> “Une genèse particulière, car le moi est né du Ça, comme un morceau qui s’en serait détaché”  
J.-D.Nasio, op.cit., p.105

인물처럼 분석된다. 다시 말해, Yvonne가 순수함과 몽상의 상징이라면, Valentine는 비순수함과 현실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Valentine역시 Meaulnes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그녀 역시 몽상과 현실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eaulnes가 그러했듯, Valentine에게도 몽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잠재되어 있었고, 그녀 역시 현실 속 몽상의 모습으로 작품 속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Valentine이란 누구인가? *Le Grand Meaulnes*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보다 보면, 항상 Valentine를 밤의 상징이자 비순수함과 타락으로 분석이 된다. 하지만 밤이라는 시간은 이전에 언급했듯, 몽상을 꿈꾸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Meaulnes가 몽상에 잠겨있는 모습들이 묘사되는 시간이 항상 밤이었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수궁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몽상의 시간인 밤을 상징하는 인물인 Valentine를 그저 타락의 이미지로, 비순수함의 이미지로 또한 몽상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로만 여겨야 할 것인가? Michel Guiomard는 Valentine를 Yvonne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 이야기한다.<sup>46)</sup> 다시 말해, 서로 정 반대의 모습을 지닌 것 같지만 결국엔 똑같은 성향을 지닌 하나의 인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몽상과 현실에 관한 가치관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이 밖으로 표출되느냐에 의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다. Yvonne는 그 자체의 모습 그대로 순수함과 몽상이 비취었다면, Valentine는 Frantz라는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그녀의 몽상과 순수함이 간직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

우선 Frantz란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서 Valentine에게 몽상이 존재하고

---

<sup>46)</sup> “Guiomar voit en elle[Valentine] le Double d’Yvonne(au sens psychocritique), tout comme il voit en Frantz et François les Doubles de Meaulnes, et dans une certain mesure il a raison... Si l’Yvonne de la première partie apparit, à première vue, comme une “princesse lointain”et une fée, la Valentine de la troisième partie figure comme une Cendrillon, et une pierrette.”  
Marie Maclean, op.cit., p.152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자. Frantz는 작품 내에서 '연기성 성격장애'<sup>47)</sup> 혹은 피터 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Frantz처럼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Frantz가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무의식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Oui. Monsieur de Galais donnait des fêtes pour amuser son fils, un garçon étrange, plein d'idées extraordinaires. Pour le distraire, il imaginait ce qu'il pouvait. ... Toutes les Sablonnières étaient en ruine madame de Galais près de sa fin, qu'ils cherchaient encore à l'amuser et lui passaient toutes ses fantaisies. (p.202)

-그래, 갈레 씨는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그 아들은 독특한 생각으로 가득 찬 소년이었지. 그는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곤 했다. 갈레 부인이 죽을 무렵 사블로니에르 성 전체는 폐허가 되고 있었지만, 그 때도 그는 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고, 아들의 모든 환상을 채워주려고 했다.

이처럼 Frantz는 단 한 번도 유년시절부터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가 좌절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좌절되지 않은 무의식적 욕구는 억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밖으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욕구를 억압할 줄 모르는 Frantz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가족의 희생과 동료의

47) “연기성 성격장애는 매우 지적으로 행동하며, 항상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지나칠 정도로 정서표현이 많고,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곧 싫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며,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때로는 남의 눈에 매력이 넘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성이 결여되고, 인정이 메마른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한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며,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친 외적 표현을 한다. 감정 위주로 일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자기 환상에 따라 해석하기도 한다. 불만이 있을 때에는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힌다. 감정이 풍부하고, 매력이 있어서 사람을 사귀기가 쉬우나,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과 쉽게 사귀다가 쉽게 헤어진다. 일상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요구만 관찰시키려 하고, 그것이 관찰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원망한 나머지 헤어지게 된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지적 작업 보다는 영감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게 높다.”

이현수, 『제5판 이상행동의 심리학』, 대왕사, 2002, p.274

행복마저 앗아가는 이기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이기적인 모습은 그가 무의식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sup>48)</sup>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품 속에서 Yvonne와 Valentine에 의해 Frantz를 “enfant”이라 단정 짓는 것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몽상의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Valentine는 이에 반해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Valentine와 몽상적인 Frantz는 극과 극의 성향을 띄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sup>49)</sup>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에 빠지기 전, 상대방에게서 나와 닮은 면을 찾는데, 자신과 닮은 모습을 찾는 순간 그 상대방에 자기 자신을 동일화 시키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sup>50)</sup> 결국, Valentine역시 Frantz와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에도 무의식이, 몽상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처음엔 갑작스레 다가온 몽상의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엔 Frantz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Yvonne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만의 순수함과 몽상을 간직하고자 한다.

«Voici, disait-elle, ce que me promettait mon fiancé, comme un enfant qu’il était… Quelles folies! n’est-ce pas?»

Meaulnes, interdit, soucieux, l’écoutait. Il retrouvait, dans tout cela, comme l’écho d’une voix déjà entendue. Et il y avait aussi, dans le ton de la jeune fille, lorsqu’elle contait cette histoire, un

48) “무의식은 현실에 관심이 없다. 쾌락원칙을 추구하는 무의식은 외부세계가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계산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분별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표출한다.”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민음사, 2004, p.127

49) “Aimer l’autre, c’est toujours s’aimer soi-même.” : J.-D.Nasio, op.cit., p.74

50) “Nous(c’est-à-dire le moi), nous fréquentons cette personne(quelqu’un qui nous attire) jusqu’à l’incorporer peu à peu au-dedans de nous et la transformer en une partie de nous-même.”

Ibid., p.74

vague regret. (p.301)

“약혼자는 내게 어린애처럼 약속했어요...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에요!”

몬느는 어리둥절하고 근심에 잠겨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 모든 이야기에 이미 들은 바 있는 어떤 목소리의 메아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녀의 말투에서 어렴풋하게 후회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Valentine는 Frantz를 그리워하며 Frantz를 거부했던 일을 후회가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Valentine는 자신이 몽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Frantz와의 재회를 통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Valentine는 비로소 자신의 잠재되어있던 무의식을 깨우고 비로소 그 안에 온전히 스며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Sablonnières에 그녀가 Frantz와 함께 등장하면서 제2의 Yvonne로서 또 다른 순수함의 상징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 2-3. 몽상과 현실의 혼재 : Meaulnes

Meaulnes의 몽상가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대목은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 Meaulnes를 보며 « 로빈슨 크루소 »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François의 생각은 이러한 그의 기질과 다음에 할 그의 행동을 독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Adossé à la porte et la tête penchée, il semblait profondément absorbé par ce qui venait d'être dit. En le voyant ainsi, perdu dans ses réflexions, regardant, comme à travers des lieux de brouillard, ces gens paisibles qui travaillaient, je pensai soudain à cette image de Robinson Crusoé, où l'on voit l'adolescent anglais, avant son grand départ, "fréquentant la boutique d'un vannier"… (pp.28-29)

문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는 방금 주고받은 말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생각에 잠겨, 일하고 있는 그 평화로운 사람들을 마치 안개를 통해 보는 것 같은 그를 보면서 「로빈슨 크루소」의 한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것은 대항해를 떠나기 전에 광주리 상점에 자주 드나드는 영국 청년의 모습이였다.

작품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Meaulnes는 몽상가의 기질이 충만한 현실적 인물이었을 뿐, 진정한 몽상가는 아니었다. 작품 초반부에서 그려지는 Meaulnes가 꿈꾸는 몽상들은 현실 도피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홀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다는 사실은 “맨발로 가시양골담초 속을 걷는 Meaulnes”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 가시양골담초라는 식물은 바다 근처 혹은 물이 많은 곳에 살며 수많은 가시가 꽃과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수많은 가시가 나있는 꽃밭을 맨발로 걷고 있는 Meaulnes의 모습은 마치 속죄의 마음으로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그의 모험은 외면적으로는 아름답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그를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 하다. 이처럼 Meaulnes에게 있어서 모험과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Meaulnes의 첫 몽상가적인 모습은 단지 그를 괴롭히는 현실에서 잠시라도 떠나있고 싶어하는 이의 모습이었을 뿐, 진정한 몽상가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과 몽상의 경계선상에 위태롭게 서 있는 Meaulnes의 모습은 두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에게 진정한 몽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도와준 Yvonne와 다시금 현실 속의 안정감을 깨닫게 해준 Valentine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Meaulnes의 분신으로써 그 안에 존재하는 현실과 몽상이라는 두 가지 내면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Meaulnes의 환상 속에서 이뤄지는 이들의 첫 등장은 그녀들이 Meaulnes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양면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이 환상들은 Meaulnes가 신비의 영지로 가기 전과 신비의 영지에 도착한 이후로 나뉘진다. 우선 그가 꾸었던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Glacé jusqu'aux moelles, il se rappela un rêve - une vision plutôt, qu'il avait eue tout enfant, et dont il n'avait jamais parlé à personne : un matin, au lieu de s'éveiller dans sa chambre, ... Près de la première fenêtre, une jeune fille cousait, le dos tourné, semblant attendre son réveil... (p.69)

끝수까지 얼어붙은 그는 어떤 꿈 - 아주 어렸을 때 가졌던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는 어떤 환상 - 을 생각했다. 가령 어느 날 아침, 그의 방에서 깬 것이 아니라, ... 첫 번째 창문 옆에는 한 젊은 처녀가 등을 돌린 채 그가 깨기를 기다리는 듯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Meaulnes가 신비의 영지로 이르는 길에서 무의식 중에 처음으로 보았던 환상이다. 이 몽상의 분위기는 Meaulnes로 하여금 따뜻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은 등을 돌린 채,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는 이 바느질을 하는 행위에서 Valentine를 연상하게 된다. 바느질이라는 행위는 Valentine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녀의 직업이 방직공이라 것 뿐만 아니라 Meaulnes의 Valentine에 대한 추측에서 역시 그녀는 바느질하는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다.

J'ai deviné qu'elles étaient couturières ou modistes. (p.292)

나는 그 여자들이 재봉사나 부인용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짐작했다.

Meaulnes는 그녀가 바느질을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떠한 단서도 제공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Valentine이 방직공

출신이라 짐작한다. 이는 그가 무의식 중에 Valentine를 그의 어린시절(tout enfant)에 했던 몽상 속에 등장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Valentine이 Meaulnes의 현실적 내면을 상징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Valentine이 등장하는 그의 첫 몽상은 Sablonnière에서 신비의 여인이었던 Yvonne를 만나기 전에 이뤄졌다. 즉, Meaulnes가 아직 현실세계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안 이뤄진 몽상이었다는 것이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하게 된 몽상은 그가 현재 처해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것이었다. 모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몽상으로 Meaulnes가 찾은 것은 그가 도망치고 싶어했던 현실세계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현실세계에 대한 몽상을 꾸는 것에 등장하는 여인 Valentine는 그의 현실적 내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Valentine이 그의 현실적 내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면, 이내 어렵지 않게 Meaulnes가 평소 현실세계에 대해 지니고 있던 관념 또한 짐작할 수 있다.

Meaulnes는 Valentine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현실의 안정감과 자신의 열망이었던 몽상의 세계로의 회귀를 포기했다는 좌절감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감정의 대립은 Valentine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Et moi, je me sens, près d'elle, presque heureux. (p.290)

나는 그녀 곁에서 행복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Meaulnes가 Valentine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은 행복감과 안정감이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이상형이었던 Yvonne와 함께 있을 때에는 결코 느껴 본 적이 없는 감정이다. 여기에서 Meaulnes의 현실세계에 대해 지니고 있는 그의 양면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즉, 현실 세계로부터의 도피를 꿈꾸는 동시에 이 도피하고 싶은 세계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 Valentine와의 만남을 계기로 끝내는 불안한 몽상의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Valentine와의 관계는 Meaulnes에게 현실로부터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해주면서 그의 내면에도 현실을 지향하는 성향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의 이상지향적인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Meaulnes의 두 번째 환상을 묘사한 것이다. 이 환상은 신비의 영지에 도착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Alors ce fut un rêve comme son rêve jadis. Il put imaginer longuement qu'il était dans sa propre maison, marié, un beau soir, et que cet être charmant et inconnu qui jouait du piano, près de lui, c'était sa femme... (p.91)

그 순간 그는 그 꿈을 예전에도 꾸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혼한 후의 어느 날 저녁, 자기 집 안, 그의 곁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미지의 매력적인 존재가 자기 부인이라는 상상을 한참 동안 했다.

이 환상 속에는 Meaulnes가 그리는 이상적 여성, 자신이 꿈에 그리는 아내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바느질을 하는 여인의 모습이 Valentine를 연상시킨다면, 피아노를 치는 여인의 모습은 Yvonne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Alors Mlle de Galais proposa de jouer avant que la nuit ne vînt. Mais il faisait sombre dans ce coin du salon et l'on fut obligé d'allumer une bougie. (p.255)

그러자 갈레 양은 밤이 깊어지기 전에 피아노를 연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실의 모퉁이는 피아노를 치기에 어두워서 촛불을 켜야만 했다.

Meaulnes와의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 Yvonne가 그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그가 했던 두 번째 환상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Yvonne가 그의 두 번째 환상 속에 등장했던 여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Yvonne가 Meaulnes의 이상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Yvonne의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그녀가 Meaulnes의 환상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을 확인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Meaulnes가 그녀를 자신의 환상 속 인물로 만드는 것에도 일조한다. 즉, 작품 안에는 Yvonne외에도 피아노를 치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Meaulnes의 어머니다.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따르면,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 한다.<sup>51)</sup>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통해 어머니는 아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eaulnes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삼고 그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 여인인 Yvonne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이상적인 여인상의 구체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Meaulnes의 이상 속 여인이 된 Yvonne는 그가 이상의 세계를 단지 꿈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곳을 찾아가는 모험을 하도록 도우며 그를 진정한 모험가의 면모를 갖추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Yvonne는 Meaulnes의 이상지향적인 성향을 일깨우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정답이 될 것이다. 즉, Yvonne는 Meaulnes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기질을 깨우기 위해 그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았고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Yvonne의 오빠 Frantz가 Meaulnes의 기질을 깨우려

---

51) “Pour le garçon, l’objet de la pulsion, c’est-à-dire le phallus, c’est la mère, ou plutôt la mère fantasmée et quelquefois, curieusement, nous allons le voir, le père fantasmé.”  
J.-D.Nasio, op.cit., p.84

제3세계의 신비로운 물건을 보여주고, 신비의 영지를 찾도록 돕는 행위와 자신의 연인이었던 Valentine를 찾아오게 요구함으로써 모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굉장히 상이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Yvonne는 다만 Meaulnes의 시야에서 사라짐으로서 그가 자신을 찾도록 만드는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Yvonne의 태도는 Meaulnes의 몽상가적인 기질은 100% 다른 사람의 의견과 행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순수 그가 지니고 있던 또 다른 이상지향적 성향이 있음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Yvonne는 Meaulnes의 이상적인 면을, Valentine는 그의 현실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Meaulnes의 양면성은 그녀들의 의도와는 달리 Meaulnes에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Yvonne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Meaulnes는 끝없는 이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이고, Valentine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현실에 안주해야 했을 것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Yvonne는 Meaulnes의 현실성을, Valentine는 그의 몽상(rêverie)을 일깨우고 싶어했다. Valentine의 경우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Valentine와의 관계를 통해 현실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Meaulnes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Valentine이 자신의 친구 Frantz의 약혼녀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다음은 Valentine와 Frantz의 관계를 몰랐을 당시 Meaulnes가 그녀에게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 Ma femme, Valentine, ma femme... 》

Et chaque fois, en prononçant sourdement ce mot, devant ces paysans inconnus, dans cette salle obscure, il avait l'impression de commettre une faute. (p.300)

“내 아내, 발랑틴이, 내 아내...”

어두운 식당에 있는 낯선 농부들 앞에서 잘 들리지 않게 이렇게 말해야 했던 몬느는 마치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Meaulnes는 Valentine를 자신의 아내라 부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 이 죄책감은 자신이 열망하던 모험과 몽상의 세계를 포기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자책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열망이 더 강해진다. 마치 Valentine이 Meaulnes를 보며 그의 연인이자 자신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인 Frantz를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Meaulnes역시 Valentine를 보며 자신의 몽상에 대한 열망을 더욱 더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Meaulnes는 Valentine와의 약혼시절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잃어버린 사랑, 즉 이상적인 세계를 찾으려 끊임없이 현실 속을 헤맸다. 그리고 끝내는 Valentine와 함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시골로 도피하면서 자신의 허황된 꿈과도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은 오히려 버리려 했던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제공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의 3부 15막 Le secret(suite)의 초반부에 공개되는 Meaulnes의 일기에서 드러난다.

우선, Meaulnes는 시골에서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자신이 아직 방학 중인 학생의 신분이라는 혼동을 겪게 된다. 그리고 시골이라는 배경 덕분에 Meaulnes는 시골에서 머무르는 내내 진흙을 신체에 묻히게 되고 이것 역시 학창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년기인 학생 신분과 진흙이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이상세계를 찾으려 했던 그의 모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험에 대한 열망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할 무렵 보이는 Valentine의 태도를 살펴보자.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Valentine의 모습은 그녀가 Paris에 거주하고 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Paris에서는 우스꽝스러운 피에로,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현실에 지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었던 반면, 시골에서

Valentine의 모습은 une jeune paysanne처럼 순수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순백색의 이미지와 상응하는 Yvonne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게 만든다. Meaulnes에게서 Frantz의 모습을 보며 사랑에 빠진 Valentine는 시골이라는 지역에 그와 함께 있으면서 다시금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순수성을 내보이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성을 바탕으로 Meaulnes와의 꿈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Meaulnes는 그러한 Valentine에게 숨어있던 Yvonne의 모습을 찾게 되면서 다시금 이상의 세계를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François와 그의 아저씨에 의해 주최된 야유회에서 Meaulnes와 다시 만나게 된 Yvonne의 태도는 Valentine의 것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Valentine이 Meaulnes와 함께 꿈 같은 생활을 그렸다면, Yvonne는 현실 속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꿈꿨다. 몽상의 세계를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이고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이미 자신의 오빠 Frantz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Meaulnes마저 자신의 오빠와 같은 길을 걷기를 바라지 않았다. 몽상의 세계로 빠지는 것을 지양한다는 그녀의 생각은 이미 François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위에서 한 번 언급된 바 있다. 이처럼 Meaulnes와 함께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길 원하는 Yvonne는 그와의 재회 후 끊임없이 Meaulnes가 현실을 깨닫고 인정해 받아들여도록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우선, Meaulnes가 예전 몽상의 세계를 찾는 질문에 괴롭지만 꺾끗하게 더 이상 그가 찾는 세계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태도가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점점 더 그를 몽상의 세계로 밀어 넣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두 여인의 의도는 마치 현재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Bachelard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52) Meaulnes의 그

---

52) “En particulier, le présent ne peut rien faire. Puisque le présent effectue le passé comme l’élève effectue un problème imposé par un maître, le présent ne peut rien créer. Il ne peut

행동들은 모두 과거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Valentine와 함께일 때나, Yvonne와 함께일 때나 Meaulnes는 항상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존재 위에 현재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를 덮어씌울 뿐, 결국 François처럼 온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실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Meaulnes가 과거 지향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서 이것을 Frantz처럼 헛된 이상만을 쫓는 이상주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지향적 = 이상주의자”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Meaulnes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현재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3)</sup> Gaston Bachelard는 몽상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sup>54)</sup> 따라서, Meaulnes는 몽상을 하면서 느꼈던 자유를 다시 느끼고자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Frantz가 몽상의 세계를 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Yvonne와 Valentine의 의도를 통해 Meaulnes의 한결 같은 이상 세계로의 갈망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Meaulnes는 그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어떤 기질들이 잠재되어 있었는지 그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의 최종 몽상가의 모습은 마침내 이 둘을 모두 평정한 모습이었다.

---

ajouter de l'être sur l'être.”

Gaston Bachelard, *La dialectique de la dureté*, P.U.F., 1972, p.3

53)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또한 생각과 판단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 거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생각과 감정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실제 ‘경험’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Philip Zimbardo & John Boyd, 『The time paradox』, 오정아 역, 미디어 월, 2008, p.103

54) “Psychologiquement parlant, c'est dans la rêverie que nous sommes des êtres libres.”

Gaston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Quadriga/P.U.F., 1960, p.86

### 3. 공간과 인물의 상관관계

공간은 그 안에 어떤 인물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몽상을 쫓는 Frantz가 등장하는 모든 작중 배경들은 모두 자유로움과 불안함 혹은 신비로움으로 채색되어 나타난다. 반면, 인물 역시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의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자기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공간의 성향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이처럼 공간과 인물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고유한 성향과 분위기를 서로에 맞게 맞춰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공간과 작중인물들 간의 양면성을 바탕으로 공간과 인물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 3-1. 인물이 공간에 미친 영향

회화 작품들을 살펴보다 보면, 인물의 성향 혹은 그 당시의 감정에 의해 그 배경의 분위기가 결정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회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문학에서 역시 작중 인물에 의해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혹은 문학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배경 분위기 역시 결정된다. 19세기 사실주의 문학들을 참고 하자면, 이러한 작품의 배경 분위기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모습에 따라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공간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인간의 성향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Le Grand Meaulnes* 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중 인물들이 공간과 좀 더 나아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등장인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공간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장인물이 공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영지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신비의 영지라는 공간은 첫 등장부터 금방이라도 난쟁이들과 공주님의 모습을 마주칠 것만 같은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 - Jamais on ne m'en empêchera, répondit une voix moqueuse de jeune garçon. Est-ce que nous n'avons pas toutes les permissions?... Même celle de nous faire mal, s'il nous plaît...》...

《 Il s'agit d'une noce, sans doute, se dit Augustin. Mais ce sont les enfants qui font la loi, ici?... Etrange domaine!》 (p.72)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허락 받았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것이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야...”

“틀림없이 결혼에 관한 문제일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 애들이 법을 만드나? 이상한 곳이군!”

우연히 발견하게 된 영지의 첫 등장은 이렇듯 아이들과 함께 이뤄진다. 이 때, 등장하는 아이들은 Saint-Agathe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른들이 지정해 놓은 규범과 규율에 얽매어 있는 Saint-Agathe의 아이들과는 달리 이곳의 아이들은 그들이 직접 이 공간의 규칙을 새로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이내 제임스 배리의 소설 「피터 팬」(Peter and Wendy, 1911)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어린이는 번영과 진보의 시대 속에서 희망과 낙관론의 상징<sup>55)</sup>으로 자리매김했고, 이것은 문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영향은 Alain-Fournier에게도 비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lain-Fournier가 영국 문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ousoé)」를 작품 안에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듯, 순수함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이 지배하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55) 차은정, 「영국 판타지 아동문학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5, p.55

순수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게 된다.

이 신비의 영지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닌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작품의 후반부를 살펴보다 보면, 이 영지에는 Sablonnières라는 명칭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초반부에는 철저히 그 명칭을 숨긴 채 내용을 전개시킨다. 왜 작가는 이 공간의 이름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는 동화책들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제시되지 않는다. 대체로 구체적 시간과 공간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현실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익명의 공간에서 비롯되는 초현실성은 주로 동화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역시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신비의 영지라는 공간은 다른 동화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초현실적 공간<sup>56)</sup>으로서 작품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초현실적 공간은 환상성이 살아있는 공간이라 정의되기도 한다. 20세기에 유행했던 초현실주의 작품의 특징인 몽상과 몽환은 환상과 상상의 경계점에 놓여있는 환상성<sup>57)</sup>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Alain-Fournier는 이처럼 익명의 공간을 통해 환상성을 작품 안에 투영하고자했다. 이 공간을 통해 작품의 동화적 환상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 공간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느껴질 Meaulnes의 상실감과

---

56) “초현실세계란 현실세계 밖의 세계로 마력의 활용이 상식화되는 세계이며 절대자와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이다. 등장인물은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같은 차원의 세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현실세계는 등장인물이 항상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다. 또한 초현실적 존재는 현실세계와 근접한 곳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그들이 사는 곳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곳과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우현옥, 「황선미 동화의 공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10, p.26

57) “서구에서 유래한 fantastic과 fantasy는 자주 혼란을 일으킨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지칭하는가하면 현실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작품을 지칭하기도 한다. ... 19세기 초반 무렵 콜리지에 의해 문학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명사가 되었다. 콜리지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모호성을 지시한다고 한다. 그는 상상력과 공상의 차이점이 환상이며 실제적인 것이 해체적 행위를 통해 다시 창조되는 것이 환상이라고 한다.”

김명옥, 「한국 판타지동화의 공간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7

좌절감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신비의 영지는 순수함과 환상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초현실주의 장소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내 네버랜드처럼 초현실주의적이자 이상적인 장소는 Valentine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성향에 의해 순식간에 현실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다음의 Valentine이 Frantz의 약혼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Meaulnes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자.

- C'était mon ami le meilleur, c'était mon frère d'aventures, et voilà que je lui ai pris sa fiancée!

« Ah ! poursuivit-il avec fureur, quel mal vous nous avez fait, vous qui n'avez voulu croire à rien. Vous êtes cause de tout. C'est vous qui avez tout perdu! tout perdu! » (pp.302-303)

-그는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모험의 형제였어. 그런데 내가 그에게서 약혼녀를 빼앗다니! « 아!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는 당신,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요! 모두 당신 탓이야. 당신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군. 모든 걸! »

Meaulnes는 Valentine이 Frantz의 약혼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약혼녀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단순히 그에 대한 죄책감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Frantz에 대한 죄책감에 더불어 그녀를 비난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비난과 책망은 그녀가 Frantz를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좀 더 근본적으로는 몽상의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Meaulnes는 몽상의 세계를 믿지 않는 Valentine에 의해 그가 찾고자 했던 몽상의 공간이 붕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Meaulnes는 왜 그토록 신비의 영지의 붕괴를 모두 Valentine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피터 팬」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찾을 수

있다.

피터 팬의 네버랜드에서는 뭐든지 상상하는 대로 이뤄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이다. 하지만,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어른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곧, 현실 세계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바로 상상한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의지이다. 이 의지가 없다면 이내 이 모든 이상적인 세계는 붕괴되어 버린다. 58) 지극히 동화적인 배경 요소로 이용되고 있던 신비의 영지 역시 네버랜드처럼 상상의 실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현실의 공간인 Paris에 살던 Valentine이 신비의 영지에 오기 전까지 이곳을 방문했던 모든 이들은 지극히 몽상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거나 혹은 순수함의 상징적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Valentine의 등장으로 인해 처음으로 신비의 영지 안에는 환상과 몽상에 대한 믿음에 금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작은 불신은 나비효과처럼 이내 이상의 세계를 붕괴시키게 된다.

Valentine는 이 신비의 영지를 이상의 세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몽상가 Frantz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여긴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결국 Valentine는 Frantz의 가시적 자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녀에게 몽상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다는 것은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던 Frantz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Frantz가 더 이상 신비의 영지에 머무르지 않고 도피하게 되는 장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58) "Pour cette raison la faute de Valentine, ainsi que celle de Meaulnes, n'est pas une faute charnelle mais une faute autrement grave aux yeux de Fournier, le manque de foi qui fait écrouler le monde fragile de l'illusion."

Marie Maclean, op.cit., p.43

Ma fiancée a disparu, me faisant dire qu'elle ne pouvait pas être ma femme ; qu'elle était une couturière et non pas une princesse. Je ne sais que devenir. Je m'en vais. Je n'ai plus envie de vivre. Qu'Yvonne me pardonne si je ne lui dis pas adieu, mais elle ne pourrait rien pour moi... (pp.107-108)

약혼녀는 내 부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라도 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공주가 아닌 재봉사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압니다.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해도 이분은 나를 용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지금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테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Frantz가 Valentine를 보는 시각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녀가 몽상의 세계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을 전후로 Frantz에게 있어 공주에서 재봉사로 순식간에 그녀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신분 변화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급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몽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유입되면서 파생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Frantz가 Valentine의 현실 세계에서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 역시 몽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에 잠시나마 눈을 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또 다른 자아였던 Valentine에게 현실적 성향이 돌아오면서 Frantz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내재된 현실적 성향에 눈을 떴다는 것은 현실을 거부하면서 더 새롭고 더 강해진 형태의 몽상적 성향을 탄생시키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밝혀진다.

« Je voulais mourir. Et puisque je n'ai pas réussi, je ne continuerai à vivre que pour l'amusement, comme un enfant, comme un bohémien. J'ai tout abandonné. Je n'ai plus ni père, ni soeur, ni maison, ni amour... Plus rien, que des compagnons de jeux. (p.142)

“난 죽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이처럼, 보헤미안처럼 즐기며 살 거야. 모든 것을 포기했어. 내겐 아버지도 없고 누이도 없어. 집도, 사랑도 없지. 오직 어울려 노는 친구들만이 남았을 뿐이야.”

Valentine에 의해 현실세계에 눈을 뜨게 된 Frantz는 죽고자 하는 충동에 직면하게 되고 붕괴되는 이상의 세계를 떠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의 자살 행위에는 죽음을 통한 재탄생의 상징성이 부여되어 있다. J.-D.Nasio에 의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충동은 모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sup>59)</sup> 따라서, 그의 자살 행위는 위의 이론에 따라 죽음을 통해 그가 경험한 현실 세계를 잊고 다시 절대 몽상가로 재탄생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훗날 Meaulnes와의 재회를 통해 이전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몽상가의 모습으로 재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몸부림은 결국 그가 현실 세계에 잠시나마 흡수되었으며 이는 신비의 영지가 붕괴되는 것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결국 작중인물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신비의 영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몽상의 세계라는 곳은 마치 크리스탈처럼 아름답고 투명하지만 그만큼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간적 배경 요소들도 분명 작중인물에 의해 그가 지니고 있던 그 본래의 의미가 전환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붕괴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인물이 공간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공간 역시 인물의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공간이 작중인물의 성향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sup>59)</sup> “Au-delà de leur différence, les pulsions de vie et de mort visent à rétablir un état antérieur dans le temps.”

J.-D.Nasio, op.cit., p.95

### 3-2. 공간이 등장인물에게 미친 영향

우리의 생활환경 속에서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래에는 환경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의 심리학에서는 환경이 인간 행동의 독립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0)</sup> 이처럼 인간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이 장에서는 공간의 환경이 작중인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할 것이다.

우선 Valentine와 Meaulnes가 그들의 약혼 기간 동안 잠깐 머물렀던 시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이 머물렀던 공간은 몽상을 꿈꾸게 하는 역할을 한다.

Ce Rideau semé de grappes rougies par le soleil, ces voix matinales montant dans la chambre silencieuse, tout cela se confondait dans l'impression unique d'un réveil à la campagne, au début de délicieuses grandes vacances.(p.298)

빨간 포도송이처럼 햇빛이 뿌려진 커튼, 조용한 침실까지 들려오는 그날 아침의 목소리, 모든 것이 달콤한 방학 초에 시골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독특한 인상과 혼동되었다.

Meaulnes는 이곳에 도착한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서 어떤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혼란은 성인이 된 Meaulnes에게 한창 몽상의 세계를 동경하던 학창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

60) “심리학에서 최초의 환경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지적한 사람들은 게슈탈트 심리학파이다. 1935년 르윈은 행동의 장 이론 (Theory of the field of behavior)에서 행동(B)이 인간(P)과 환경(E)의 함수라는  $B=f(P,E)$ 공식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환경을 인간 행동의 독립 변수로 취급하는 기본적 입장이 심리학에 성립되었다. 르윈의 후계자인 바커(R.G.Barker)는 생태 심리학 분야에서 행동환경(behavior set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 생활의 특정 공간, 시간에서 공통되는 행동을 발생시키는 환경과 행동 유형을 양자와 관련한 관찰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포착하려고 하였다.”

권성진, 차소란, 「실내공간계획에 있어서 환경심리행태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라벌 대학 논문집 제20호, 2001, p.320

이 작품의 3막 15장 Le secret(suite)을 읽으면서 왜 Meaulnes가 이 공간에서 이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왜 그가 이곳에서 머무르는 내내 신비의 영지를 떠올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골이라는 공간은 신비의 영지와 Saint-Agathe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한데 합쳐져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이곳은 마치 신비의 영지처럼 정확한 위치와 지명이 밝혀져 있지 않고, 외부 침입자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공간으로서 그들의 익명성<sup>61)</sup>을 보장해 주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또, 이 장소 역시 신비의 영지처럼 현실 세계 인물들의 침입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진흙이다. 진흙은 Saint-Agathe 학교의 놀이의 상징이자 몽상의 상징으로 등장했었고, 3막 15장에서도 Meaulnes의 회상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언급된다. 이처럼 몽상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방에 널려있다는 것은 결국 이 장소가 몽상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Meaulnes와 Valentine이 머물렀던 공간은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닌 제2의 신비의 영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시절의 순수함이 지배하고 있는<sup>62)</sup> 신비의 영지와 유사한 시골 마을 역시 그 안에 머무는 작중 인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미 위에서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공간 내에서는 여러 초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익명성 보장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즉, 이러한 초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안에서 작중 인물들은 별 갈등없이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보였던 모습을 버리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쉽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

61) “익명성(anonymity)이란 ‘이름을 숨기다’라는 익명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명진,2001)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신분(모습,실명,나이,성별,학력 등)을 숨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분의 노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란,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참여도와 토론 메시지 내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p.28

62) “...alors que dans le domaine merveilleux du Domaine régnait la pureté de l'enfance.”

Marie-Madeleine Touzin, op.cit., p.66

된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마치 Meaulnes가 신비의 영지 안으로 처음 잠입해 들어갔을 때, 아무도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그 모습을 탈바꿈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Descendre au dîner, pensait-il, je ne manquerai pas de le faire. Je serai simplement un invité dont tout le monde a oublié le nom. D'ailleurs, je ne suis pas un intrus ici. Il est hors de doute que M.Maloyau et son compagnon m'attendaient...》 (p.80)

‘저녁식사에 내가 빠질 수야 없지. 나는 초대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잊은 손님이 되어야지. 게다가 난 불청객이 아니야. 말루아요 씨와 그의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Meaulnes처럼, Valentine역시 이 익명성을 이용하여 몽상의 세계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풀기 시작한다. 이곳에 오기 전 Valentine는 항상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몽상의 세계를 거부해 왔다. 심지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몽상(rêverie)마저 부정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다. 그렇다면 Valentine는 왜 이 시골이라는 공간에 와서야 그 경계를 풀기 시작한 것일까?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그것은 익명성에 있다. 그녀가 처음 Frantz를 따라 신비의 영지로 가고자 했을 때, 그녀의 곁에는 Paris에서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녀의 언니가 함께 있었다. 즉,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의 모습을 Frantz를 따라감으로 인해 탈피하려는 순간,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언니라는 현실의 벽에 의해 몽상의 세계로의 진입이 좌절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 시골 마을로 가는 과정은 신비의 영지로 가는 과정과는 차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녀가 몽상의 세계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 차이점은 바로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Meaulnes역시 그녀의 Paris에서의 본 모습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Meaulnes는 그녀의 언니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띄고 있다. 즉, Valentine의 언니는 그녀가 몽상의 세계로 편입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반면, Meaulnes는 그녀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몽상(rêverie)을 오히려 끌어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떤 현실적 제약도 받지 않은 상태의 Valentine는 마치, Meaulnes가 신비의 영지에 초대된 익명의 손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간의 익명성과 몽상(rêverie)이라는 두 축매제를 바탕으로 마음 놓고 시골의 순수한 처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공간의 영향을 받아 순수한 처녀의 모습을 한 여인은 다시 그 공간을 채우는 하나의 배경요소가 되어 Meaulnes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Saint-Agathe를 연상케 하는 진흙과 신비의 영지를 생각나게 하는 공간적 요소의 역할을 하는 Valentine에 의해 다시금 그의 꺼져가던 몽상(rêverie)에 불을 지피게 된다.

신비의 영지와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Paris역시 작중인물에 영향을 미친다. 제2의 신비의 영지 즉, 어느 시골 마을이 현실적인 Valentine를 몽상가적인 인물로 바꿔놓았다면, Paris라는 공간은 몽상가적인 인물 Meaulnes를 현실적인 인물로 변화시킨다.

*Le Grand Meaulnes*에서 Paris는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지옥(l'enfer)으로 표현되고 있다. 작품에서 Paris의 날씨는 항상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의 연속이며, 이것은 험겁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회색빛 Paris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는 그 공간에 머무르는 인물의 성격을 우울하고 부정적인 인물로 변화시킨다.<sup>63)</sup> 즉, 날씨의 특징이 Meaulnes의 감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sup>64)</sup>

63) “기후는 개인의 행동이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며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구성원의 성격을 달라지게 해서 그 사회의 짜임새나 문화, 문명의 내용이나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방인과 남방인의 성격을 보면 햇빛이 적은 곳에서 사는 북방인들은 밝음이 결여되고 둔중한 감이 있으나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햇빛이 강한 곳에 사는 남방인들은 일반적으로 밝고 명랑하지만 기후의 덕으로 다소 게으른 경향이 있다.”

윤성탁, 『생활기상 이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p.41

64) “Pluie, vent, nuit noire : l’atmosphère extérieure est en accord avec les sentiments du héros.” Marie-Madeleine Touzin, op.cit., p.65

Aujourd'hui, dès mon arrivée à Paris, je suis allé devant la maison indiquée. Je n'ai rien vu. Il n'y avait personne. Il n'y aura jamais personne. ... Puis j'ai repris ce guet sans espoir. (pp.183-184)

오늘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예전에 가르쳐주었던 그 집으로 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 아무도 없었거든. 아마 영원히 아무도 없을거야... 희망은 없었지만 말이야.

Meaulnes가 Paris에 도착하자마자 François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성격이 지역의 날씨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Paris에 머무르고 있는 그에게서는 더 이상 Saint-Agathe와 신비의 영지에서의 호기심 많고 모험가 정신이 투철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Paris에서 Meaulnes는 Saint-Agathe에서 Yvonne를 찾기 위해 했던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만, Frantz가 적어 준 Paris의 집 주소만을 들고 찾아간 집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현실에 순응해 버리는 무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Meaulnes가 Paris로 떠나기 전, 그 곳은 그에게 있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여인(la femme idéale)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그 공간에 머무르는 순간, 이 공간은 활기찼던 Meaulnes를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또한, Paris는 Saint-Agathe와 신비의 영지와는 달리 순수함의 상징인 아이들과 노인은 등장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 공간 안에는 경찰과 불량배 혹은 노동자와 단정치 못한 여인들만이 가득 차 있다. 이들은 결코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제가 아닌, Paris의 도덕적 모습, 다시 말해, 이 공간이 지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미와 현실 속을 살아가는 이들의 고뇌를 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Meaulnes가 꿈의 공간에서 타락과 고뇌로 만연한 어른들의 세상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sup>65)</sup>

---

65) "Nous voyons donc que l'espace parisien n'a nullement dans l'oeuvre d'Alain-Fournier une

Je suis comme cette folle de Sainte-Agathe qui sortait à chaque minute sur le pas de la porte et regardait, la main sur les yeux, du côté de La Gare, pour voir si son fils qui était mort ne venait pas.(p.187)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보기 위해 손을 눈 위에 올려놓은 채 현관에 나와 하염없이 역 쪽을 바라보는 Saint-Agathe의 미친 여자 같았어.

Meaulnes는 Paris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은 Saint-Agathe에서 신비의 영지를 찾코자 사로잡혔던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Saint-Agathe에서의 광기가 몽상에 대한 것이었다면, Paris에서의 광기는 현실에 대한 광기로써, Saint-Agathe의 것은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Paris의 것은 헛된 바람에 대한 단순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기 역시 지역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66)

… j’ai commencé d’entendre rouler les fiacres dans la rue. Ils ne passaient que de loin en loin. Mais quand l’un était passé, malgré moi, j’attendais l’autre : le grelot, les pas du cheval qui claquaient sur l’asphalte… Et cela répétait : c’est la ville déserte, ton amour perdu, la nuit interminable, l’été, la fièvre…(p.186)

그러나 마차 한 대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다음 마차를 기다리곤 했지. 아스팔트 위에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방울 소리는 황폐한 도시, 잃어버린 내 사랑, 긴 밤, 여름, 열기 등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어. ….

---

valeur sociale, mais une valeur morale. Pas de descriptions d’une ville comme chez Balzac, où les différents quartiers abritent les différentes classes sociales, mais un lieu mal cerné où dominant le malheur et la dépravation : c’est là que les êtres sombrent, alors que dans le monde merveilleux du Domaine régnait la pureté de l’enfance. Meaulnes est ainsi passé du monde des rêves au monde des adultes, lieu de solitude et de perdition.”

Marie-Madeleine Touzin, op.cit., p.66

66) “Alors que, durant le récit de la Fête, Meaulnes était comparé à un héros de roman, dans ses lettres parisiennes, il s’assimile lui-même à un fou qui poursuit un rêve irréalisable.”

*Ibid*, p.64

간간이 지나가는 마차 소리를 통해 Fournier는 Paris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밤(la nuit interminable)과 여름, 열기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Meaulnes는 Paris에 도착한 이후, 영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혹은 Valentine를 만나기 위해 모두 끊임없이 기다린다. 그리고 이 기다림들은 모두 밤이라는 시간 대에 그녀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뤄진다. 즉, ‘끊임없는 밤 = 끊임없는 기다림’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여름과 열기라는 기후적 특징 역시 인간 내면의 광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Meaulnes가 지역적 특성에 의해 이런 헛된 희망에 대한 집착성 광기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Meaulnes와 Valentine를 통해 그들의 성향이 몽상의 세계에서는 순수함과 몽상가적 기질이 두드러지게 또, Paris라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의 현실에 대한 광기의 이면이 공간의 영향을 받아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작중 인물이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공간 역시 작중인물의 특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3-3. 공간과 등장인물의 상호작용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간은 등장인물에게 또 등장인물은 공간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공간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지 신비의 영지와 Frantz의 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비의 영지는 몽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한데 뒤섞여 있으며, 이 두 공간은 그의 지명과 위치가 명시 되는가 아닌가의 시점으로 구분된다. 정확한 위치와 지명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지(domaine étrange)에서는

모든 것들이 비밀에 감춰져 있으며 그 안에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반면, 이곳의 위치와 지명이 밝혀지는 순간 이 공간은 드디어 현실의 공간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와 같은 몽상의 공간은 인물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반대로 타락하기도 한다. 또, 이와 더불어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다시 그 안에 들어오는 다른 인물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면서 끊어지지 않는 피비우스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제부터 신비의 영지가 작중 인물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자.

신비의 영지는 현실 세계를 거부하고 영원한 어린이로 남고 싶어 하는 Frantz<sup>67)</sup>에 의해 탄생되었다. 그리고 그의 현실 세계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성향은 그가 탄생시킨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Frantz가 꾸민 신비의 영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은 그의 여동생 Yvonne가 그녀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Frantz의 도피로 인해 이 신비의 영지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신비의 영지의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역으로 이 신비의 영지를 수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Frantz에게서 부여받게 된다.

De cette foi qu'elle gardait dans les rêves enfantins de son frère, de ce soin qu'elle apportait à lui conserver au moins des bribes de ce rêve dans lequel il avait vécu jusqu'à vingt ans, elle me donna un jour la prévue la plus touchante et je dirai presque la plus mystérieuse. (p.263)

그녀가 오빠의 어린 시절의 꿈속에서 간직해온 믿음, 오빠가 스무 살까지 꾸었던 꿈의 단편들을 간직해온 그녀의 배려, 그녀는 어느 날

---

67) “Frantz de Galais correspond à la partie narcissique infantile, l'enfant gâté qui croit que tout ce qu'il désire doit être réalisé immédiatement et qui se heurte à la réalité, au refus des autres, alors il se déprime et fuit soit dans des rêves, soit dans des comportements d'échec.”  
A.Buisine et C.Herzfeld, *Mystères d'Alain-Fournier-colloque de cerisy*, Librairie Nizet, 1999, p.23

가장 감동적이고도 신비롭다고 할 만한 그 믿음과 배려의 증거를 내게 보여주었다.

현실의 세계로 전락해 버린 신비의 영지에서 Yvonne가 François에게 몽상의 공간이 작게나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그 증거는 바로 Frantz의 집이었다. Frantz의 집은 그가 떠난 후에도 Yvonne가 수시로 들러 옛날에 자신의 오빠가 했듯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상상을 하고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Yvonne의 행동은 몽상의 세계가 완전히 현실 세계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Yvonne의 Frantz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에 대한 믿음은 훗날, 이 영지에 또 다른 새로운 순수함과 몽상의 세계가 재탄생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몽상의 세계의 수호자인 Yvonne는 그녀의 순수성과 몽상(rêverie)을 지켜주던 신비의 영지의 몰락과 함께 소멸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몽상의 세계의 몰락이 초래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공간의 몰락은 Frantz의 도피와 몽상의 세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Valentine에 의해 야기된다. 몽상의 세계의 수호자인 Yvonne와는 달리 Frantz의 또 다른 여인, Valentine는 이 몽상의 세계의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몽상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끌어내린 것은 이 영지가 신비의 영지(Domaine mystérieux)나 아무도 찾지 않는 영지(Domaine perdu)<sup>68)</sup>가 아닌 작중 인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정확한 지명으로 명명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또한, Yvonne역시 이 공간의 정확한 지명과 위치가 나타남에 따라 더 이상 동화 속 공주님이 아닌, 현실 속 한 여인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데는 몽상의 세계의 붕괴를 초래한 Frantz도 Valentine도 아닌 François가 위치해 있다. 이 작품의 화자로 등장하면서 몽상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절제할 줄 아는

---

<sup>68)</sup> 'Domaine perdu'는 흔히 '잃어버린 영지'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이 공간은 기억 속에서 잊혀진 공간이며 현실과는 유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본 연구서에서는 이것을 '아무도 찾지 않는 영지'로 번역한다.

자아인 François는 작품 내에서 Frantz나 Meaulnes처럼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는 대신<sup>69)</sup>, 작품 안에 등장하는 모든 몽상적인 요소들을 현실 세계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신비의 영지 역시 François에 의해 처음으로 그 지명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François가 모든 진실들을 밝히게 되는 과정에는 Jasmin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Nous entendions causer et rire les autres, près de nous, au-dessous de nous, invisibles dans l'ombre, tandis que Delouche racontait ses histoires d'homme... Ce fut encore Jsmin, sans le vouloir, qui vint troubler cette quiétude. (pp.193-194)

캄캄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까이에서 다른 애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들루슈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무의식중에 그러한 평온을 흔들어 놓은 것은 역시 들루슈였다.

Jasmin은 어른처럼 흉내내는 것을 좋아하는 현실 지향적인 인물로, 고요한 여름날 저녁의 몽상을 방해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역할은 François와 Meaulnes에게 신비의 공간이자 몽상의 공간의 의미가 담겨있는 공간을 순식간에 현실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즉, Jasmin에 의해 이 공간의 정확한 위치와 가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이곳은 더 이상 이름없는 영지(Domaine sans nom)이 아닌, Sablonnières라는 현실 속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François에게 Meaulnes와 함께 꿈꾸었던 몽상의 공간으로서 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또한, Sablonnières라는 지명이 밝혀진 공간은 다시 Yvonne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Domaine étrange에서는 la femme idéale이었으나,

---

69) "Quant à François Seurel, le narrateur, il représente la partie spectatrice du moi, le voyeur qui assiste à tout sans s'y mêler, qui essaie, cependant, de jouer un rôle, d'aider les autres mais reste impuissant et finalement n'arrive pas non plus à se marier, à avoir un enfant, même l'enfant de Meaulnes qu'il a recueilli lui est enlevé à la fin."

A.Buisine et C.Herzfeld, op.cit., p.23

Sablonnières가 되면서 Yvonne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현실 속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화 속 공간과 인물의 현실화는 결국 현실 세계가 밀바탕이 되어 구성된다는 것<sup>70)</sup>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현실과 몽상은 함께 있더라도 항상 그들만의 영역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으며 서로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뿐, 결코 융화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이 두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Yvonne와 Meaulnes사이에서 태어난 새 생명과 Frantz의 집을 통해 드러난다.

신비의 영지에서 Sablonnières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이 영역은 다시 또 두 공간으로 갈라진다. 즉, 현실의 세계가 되어버린 Sablonnières영지와 아직 몽상의 공간의 세계로 남아있는 Frantz의 집으로 나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Sablonnières의 영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되고 이 공간 안에는 더 이상 몽상과 현실을 구분짓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몽상과 현실이 하나로 타협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Yvonne와 Meaulnes의 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모험을 사랑한 Meaulnes와 Frantz의 희생자인 Yvonne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과거와 순수함을 상징하며<sup>71)</sup>, Yvonne의 죽음으로 인한 순수함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넣는다. 하지만, 아기를 통해 재탄생 된 순수함과 Yvonne의 과거 순수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Ce n'est rien, dit M. de Galais, le médecin a dit que tout

70) “La fiction s'est définitivement emparée de la vie ; la vie a désormais rejoint la féerie - il devient difficile de les distinguer.”

A.Buisine et C.Herzfeld, op.cit., p.33

71) “Car de la mère morte est née une fille qui reste à Meaulnes. On a déjà signalé que cette petite porte dès sa naissance la marquee des de Galais, la blessure à la tête. La blessure caractérise la lignée de la mort, c'est avec l'enfant marquée de la sorte, un enfant qui symbolise le passé et non pas l'avenir, comme cela peut paraître à l'oeil naïf, que Meaulnes s'en ira, dans la nuit, vers de nouvelles aventures.”

Marie Maclean, op.cit., p.160

cela s'arrangerait de soi-même... Donne-lui votre doigt, elle va le serrer.》

Je découvrais là comme un monde ignore. Je me sentais le coeur gonflé d'une joie étrange que je ne connaissais pas auparavant... (pp.277-278)

“괜찮대요. 의사는 저절로 낫는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손가락을 쥐보세요. 그 애가 그걸 질 거예요.” 갈레 씨가 말했다. 나는 거기에서 내가 모르고 있던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Yvonne와 Meaulnes의 사이에서 태어난 순수함과 몽상(rêverie)의 결정체로 상징되는 아기는 태어나면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낫게 될 상처가 이마에 생긴다. 이 상처는 물론 Yvonne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절로 아물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독감 예방주사처럼 현실 세계를 받아들여 그 안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통과의례와 같은 성향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의 고통을 미리 이마의 상처를 통해 경험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는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버린 어른 François의 손을 잡고 그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아기, 그 자체를 제외하고, 그 주변에는 더 이상 아기의 몽상(rêverie)과 순수함을 지켜줄 만한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Sans doute, malgré cette sauvagerie, sera-t-elle une peu mon enfant.》 (p.312)

‘야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나를 닮은 것 같군.’

이처럼, 아기가 현실과 융화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은 François의 생각을 통해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야성적인 성격은 Meaulnes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François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 아기에게는 현실성과 몽상(rêverie)이 모두 함께 배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아기는

Yvonne와 Meaulnes라는 부모로부터 근본적인 성향을 받은 동시에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외부 환경과 주변 인물이라는 2차적인 요인에 의해 이 두 가지 성향을 모두 조화롭게 지니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세계의 조화는 새 생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등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세계의 융화가 나타나는 장소로는 Frantz의 집이 등장한다. 이곳은 그야말로 몽상의 세계를 이끌어내는 근원지와도 같은 장소이며, Sablonnières영지와는 Frantz가 떠난 이후에도 Yvonne에 의해 그 몽상(rêverie)이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순수 몽상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공간에서도 이미 현실과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이 현실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이 공간은 아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Et enfin nous découvrîmes, blottie contre le seuil d'une des portes mouillées, toute une couvée de poussins transpercée par l'averse. Presque tous étaient morts sous les ailes raidies et les plumes fripées de la mère.(pp.264-265)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비에 젖은 문지방에서 소나기를 맞은 병아리 새끼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뻗뻗해진 어미닭의 깃과 날개 아래에서 병아리들은 죽은 듯이 있었다.

순수함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갈라놓는 경계석의 역할을 하는 문지방<sup>72)</sup>에서 이미 현실 세계의 여인으로 강등된 Yvonne와 현실의 객관적인 인물 François가 이 몽상의 공간 Frantz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이 시도에 앞서 이 현실적인 인물들이 발견하게 되는

---

<sup>72)</sup> “Cette place(le seuil) symbolise sans doute le désir, plus ou moins conscient, de préserver, en restant loin, un monde plus pur ; s'avancer, ce serait rompre le charme, faire s'évanouir, comme dans les contes et les légendes, le château ou la belle jeune fille...”  
Marie-Madeleine Touzin, op.cit., p.82

것은 바로 죽은 어미 닭과 그의 새끼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지방 앞에 죽어있는 어미 닭과 그 새끼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 죽어있는 어미 닭과 간간히 살아있는 새끼들의 모습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Yvonne와 새롭게 탄생한 그의 아기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어미 닭의 죽음은 Yvonne의 죽음을 암시하며, 더 나아가 현실과 타협할 줄 몰랐던 과거의 순수함의 몰락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몰락을 통해 현실적 인물들은 몽상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즉, 어미 닭의 죽음의 목격 후에 Yvonne와 François가 Frantz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과 몽상의 공간이 융화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죽은 병아리들 속에서 살아 남은 병아리들의 모습은 Yvonne의 아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병아리들 역시 비를 맞는 고통과 슬픔 안에서 살아남은 존재이며 현실적인 인물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Yvonne의 아기와 동일한 개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아리들을 보면서 Yvonne는 과거를 회상하곤 하는데, 여기에서 왜 새 생명을 과거를 되살아나게 하는 존재이며 순수함의 존재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Yvonne와 François에 의해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 된 Frantz의 집은 작중인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지극히 현실적이며 몽상의 세계를 믿지 않았던 Valentine와 현실을 거부하고 몽상의 세계에서만 머무르려 했던 Frantz가 마침내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 j’aperçus de loin une manière de jeune ménagère en collette, qui balayait le pas de sa porte, objet de curiosité et d’enthousiasme pour plusieurs petits vachers endimanchés qui s’en allaient à la messe… (pp.314-315)

목걸이를 한 주부 차림의 젊은 여자가 문턱에서 빗질을 하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그녀는 미사에 참례하러 가느라 외출복을 입은 어린 목동들의 호기심과 열광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몽상의 세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이었던 Valentine의 목에는 예전에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그와의 완전한 결합을 상징하는 Frantz의 목걸이가 걸려있다. Valentine의 Frantz의 집으로의 회귀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Frantz의 목걸이만을 두고 본다면, Valentine이 순수함을 되찾은 존재로 Yvonne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순수한 존재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Valentine의 현실 세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이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Valentine는 Frantz의 집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성 덕분에 예전과 같은 거부감을 떨치고 그 공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Valentine의 변화와 Frantz의 결합은 이 공간 안에서 현실과 몽상의 조화가 좀 더 견고해졌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Yvonne의 새 생명과 Frantz의 집을 통해 우리는 작중인물과 공간이 얼마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관계 안에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했던 것과 그가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즉, Fournier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몽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하나로 완벽히 조화되는 세상을 꿈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II. 결론

문학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교훈을 남긴다는 특징이 있다.<sup>73)</sup> 그리고 Alain-Fournier 작품 *Le Grand Meaulnes*는 이러한 문학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문학의 특징 뿐만 아니라 서양 문학의 특징 또한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서양 문학에서는 몽상 속에 출현하는 신비로운 여성이나, 현실에서 좌절된 무의식의 욕망이라는 주제를 주로 다룬다.<sup>74)</sup> 이러한 주제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변혁기인 희망이 없는 암울한 현실에서 피안의 세계로 떠나고 싶어한 당대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 작가인 Alain-Fournier 의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인 *Le Grand Meaulnes*에도 이와 같은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음을 통해 그 역시 현실의 세계에서 도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75)</sup> 이러한 몽상과 무의식에 관한 주제는 Fournier작품의 특징인 자서전적인 성향<sup>76)</sup>과 함께 나타난다. 일례로, 작품 내에 등장하는 공간의 지명이 실제 존재하는 곳인

---

<sup>73)</sup> “Ce mélange du grand et du petit, de l'époque et de toutes les époques, est presque tangible dans les Sonnets. Le temps est élisabethain à l'horloge de Shakespeare, mais les heures y sonnent pour tous les amants, et pas seulement pour le garçon blond et la Dame noire.”

Catherine Wieder, *Éléments de psychanalyse pour le texte littéraire*, Bordas, 1988, p.109

<sup>74)</sup> “De Rousseau à Nerval, de Benjamin Constant à Flaubert et Fromentin, la nostalgie d'une figure féminine inaccessible et le désir inconscient d'échec sont aussi de grands thèmes de la littérature occidentale.”

A.Buisine et C.Herzfeld, op.cit., p.27

<sup>75)</sup> “Le rêve d'Alain-Fournier n'est que le désir de ce monde-là, ou plutôt le désir et le regret, car ce monde est à la fois l'objet de sa nostalgie et de l'objet de ses aspirations.”

Walter Jöhr, *Paysage d'une âme*, Neuchâtel, Suisse, 1972, p.95

<sup>76)</sup>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것은 알랭 푸르니에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매우 소박한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경험을 소설의 주된 소재로 하겠다는 생각을 보다 자신있게 굳힌 것이다. 알랭 푸르니에의 글줄을 튼 것은 스타일면에서, 작품의 소재면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감>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글쓰기의 제 일 원칙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욱, 「목소리를 찾아서」, 『불어불문연구』, 불어불문학회 V.30, 1995, p.368

동시에 마치 동화 속에 존재하는 지역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Fournier 자신이 만났던 여인 Yvonne를 몽상 속이나 존재할 법한 여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Le Grand Meaulnes*에서 19세기의 사실주의와 20세기의 초현실주의 문학 사조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Alain-Fournier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특징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품의 자전적 성향은 작중인물 분석에 대한 연구 주제로 활발히 쓰였다. 작중인물에 대한 분석들은 주로 François와 Meaulnes 그리고 Frantz라는 이 세 인물의 분신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결국 이들은 Fournier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sup>77)</sup> 즉, François는 현실의 세계에 묶여 몽상의 세계를 동경할 뿐,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Meaulnes는 몽상의 세계를 동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직접 실행에 옮김으로서,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마지막으로 Frantz는 작가가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세 인물들은 결국 작가의 내면과 외면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작중인물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작중 인물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공간과 등장인물들의 관계들의 양면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공간과 등장인물 각각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보았다.

우선 작중 공간들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공간들은

---

<sup>77)</sup> “Ce fut Isabelle Rivière qui démontra en premier lieu que François Seurel, Frantz de Galais et Augustin Meaulnes étaient tous trois des représentations de leur créateur, et la critique se sert de cette idée depuis de longues années, mais Guimar est le premier à avoir noté que les trois parties du roman et les trois Doubles réciproques entretiennent entre eux une relation structurale.”

Marie Maclean, op.cit., p.30

이처럼, 대표적으로 Isabelle Rivière와 Michel Guimar는 Frantz와 François를 Meaulnes의 분신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세 명의 작중 인물들 모두는 작가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Fournier의 분신으로 이야기 되는 François와 Meaulnes 그리고 Frantz처럼,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고 있었다. 즉, 몽상의 공간인 신비의 영지(le domaine mystérieux)와 현실의 공간으로 나타나는 Paris, 그리고 몽상과 현실의 경계에 놓여있는 공간 Saint-Agathe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몽상의 세계 안에도 현실의 공간이 존재하며, 현실의 세계 안에도 몽상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공간들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볼 수 있었다. 현실의 세계 Paris안에 희망의 공간 Frantz와 Yvonne의 저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비의 영지 역시 시작과 끝의 순환점 역할을 하면서 현실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실과 몽상의 세계가 한 공간 안에 서로 상감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비단 작중의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François와 Meaulnes, Frantz를 중심으로 한 작중 인물 연구와는 달리, Yvonne와 Valentine 그리고 Meaulnes를 중심으로 그 양면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상의 여인 Yvonne에게는 몽상의 세계만은 쫓아다녔던 Meaulnes와 Frantz때문에 깊어져야만 했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그녀의 현실성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현실의 여인 Valentine는 Frantz와 Meaulnes를 만남으로 인해 몽상(rêverie)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여인 역시 서로의 분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몽상과 현실의 한 면만이 부각되어 나타났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두 여인의 분신 관계를 바탕으로 Meaulnes의 양면성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Meaulnes의 연인 관계와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나르시시즘을 통해 이 두 여인 역시 François와 Frantz처럼 Meaulnes의 분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간과 등장인물의 양면성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이들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즉, 잠재되어 있던 내면이 외부로 표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공간과 등장인물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공간과 등장인물은 항상 서로에게 존재하는 양면성 중 잠재되어 있는 면을 불러 일으키며 몽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뤄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과 등장인물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Fournier가 진정으로 꿈꿨던 피안의 세계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작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만이 변혁기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선책이 아니며,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조화시킬 때에야 비로소 그 곳이 피안의 세계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François, Meaulnes, Frantz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Yvonne와 Valentine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본다면, 앞으로도 *Le Grand Meaulnes*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Bibliographies

### Textes

- Alain-Fournier, *Le Grand Meaulnes*, Librairie Fayard, 1971
- A.Fournier et J.Rivière, *Correspondance I*, 1905-1906, N.R.F., Paris,  
Gallimard, 1948
- A.Fournier et J.Rivière, *Correspondance II*, 1907-1914, N.R.F., Paris,  
Gallimard, 1966

### Ouvrages consultés

- BACHELARD Gaston, *La poétique de la rêverie*, Quadrige/P.U.F., 1960
- BACHELARD Gaston, *La poétique de l'espace*, P.U.F., 1967
- BACHELARD Gaston, *La dialectique de la durée*, P.U.F., 1972
- BOURAOUI H.-A., *Structure intentionnelle du "Le Grand Meaulnes" :*  
*vers le poème romancé*, Librairie Nizet, 1976

- BUISINE A. et HERZFELD C., *Mystères d'Alain-Fournier-colloque de cerisy*, Librairie Nizet, 1999
- GIBSON Robert, *The End of Youth –The Life and Work of Alain-Fournier*, Impress books, 2010
- JÖHR Walter , *Paysage d'une âme*, Neuchâtel, Suisse, 1972
- LESOT Adeline , *Le Grand Meaulnes Alain-Fournier*, Hatier, 1998
- MACLEAN Marie , *Le jeu suprême – Structure et thèmes dans Le Grand Meaulnes*, Librairie José Corti, 1973
- NASIO J.-D., *Le plaisir de lire Freud*, Petite Bibliothèque Payot/356, 1999
- SAUVAGE Sylvie , *Imaginaire et lecture chez Alain-Fournier*, P.I.E.-Peter Lang, 2003
- SUIRE Pierre, *Alain-Fournier au miroir du Le Grand Meaulnes*, Seghers, 1988
- TOUZIN Marie-Madeleine , *Parcours de lecture Le Grand Meaulnes d'Alain-Fournier*, Bertrand-Lacoste, 1988

- WIEDER Catherine , *Éléments de psychanalyse pour le texte littéraire*,  
Bordas, 1988
- 권성진, 차소란 , 「 실내공간계획에 있어서 환경심리 행태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 , 서라벌 대학 논문집 제20호, 2001
- 김명옥, 「 한국 판타지동화의 공간 연구 」 ,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치수, 『대장 몬느』 , 문학과 지성사, 2007
- 김희명, 「 L'image de la femme idéale chez Alain-Fournier 」 ,  
『성신연구논문집 제36집』 , 1998, pp.47-63
-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 살림, 2010
- 맹미경, 「 보들레르 시에 나타난 현대성과 우울에 관한 고찰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1999
- 서병철, 「 환상문학의 텍스트성 」 ,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논문, 2006
- 손화진, 「 *Le Grand Meaulnes*의 작중 인물 연구 -그 삼원적 구조를  
중심으로- 」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우현옥, 「 황선미 동화의 공간 연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윤경원, 「 P.Valery의 시에 나타난 빛과 자아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윤성탁, 『 생활기상 이야기 』,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1
- 이재욱, 「 목소리를 찾아서 」, 『불어불문연구』, 불어불문학회 V.30  
1995
- 이창재, 『 프로이트와의 대화 』,민음사, 2004
- 이현수, 『 제5판 이상행동의 심리학 』, 대왕사, 2002
- 이환, 정명환, *Anthologi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신아사, 2008
- 정란, 「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참여도와 토론 메시지 내용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짐바르도 필립 , 보이드 존 , 『 타임 패러독스(*The time paradox*) 』 , 오정아 역, 미디어 월, 2008
- 차은정, 「 영국 판타지 아동문학 연구 」,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5

# Abstract

The double-sidedness represented in  
*Le Grand Meaulnes*  
- Focused on the character and space -

Kim, Sung-eun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 Grand Meaulnes* (1913), the maiden and posthumous work of Alain-Fournier (Real name: Henri-Alban Fournier, 1886-1914), considered a forerunner of 20<sup>th</sup>-century *Nouveau Roman*, is known as a work strongly tinged with autobiographical character. The motif of this work is on the world of reality and ideal and the story is unfolded from many points of view focused on the heroine Augustine Meaulnes' adventure, wandering, love and friendship.

This thesis, with a focus on spaces and heroines of Yvonne and Valentine, investigates the 'double-sidedness' of the character's interior and exterior and how the aspects lying dormant inside the space and the character influenced each other in their exterior presentation.

In the first part of the main subject, we look into the double-sidedness latent in the three spaces of 'secret territory' for fantasy, 'Paris' for reality and 'Saint-Agathe' for fantasy and reality, looking for their hidden

sides relatively.

In the second part, focused on Yvonne and Valentine, heroines of the work representing the worlds of fantasy and reality, we investigate the double-sidedness of characters through their relationships - Yvonne's realistic nature represented by Meaulnes and her fantastic nature represented by Frantz. Besides, through the relations of these two women to Meaulnes, we will identify that both heroines also act as Meaulnes' alter ego to represent her double-sidedness just as Francois and Frantz did.

Lastly, in the third part, based on the theory of space and man affecting each other, we look into the correlations of ambivalences of each space and character. These correlations will be considered via analysis on the transfer of the realistic person's latent propensity for fantasy in the space of fantasy and his space of fantasy into realistic space.

Therefore, this study, breaking from the existing research on a trinity of the author between Francois Seurel, Augustin Meaulnes and Frantz de Galais, reviews the fantasy and reality narrated in the work focused on the ambivalence of heroines Yvonne and valentine and spaces. Through this, we will make endeavor to verify that Alain-Fournier was driving at the importance of harmony between fantasy and reality.